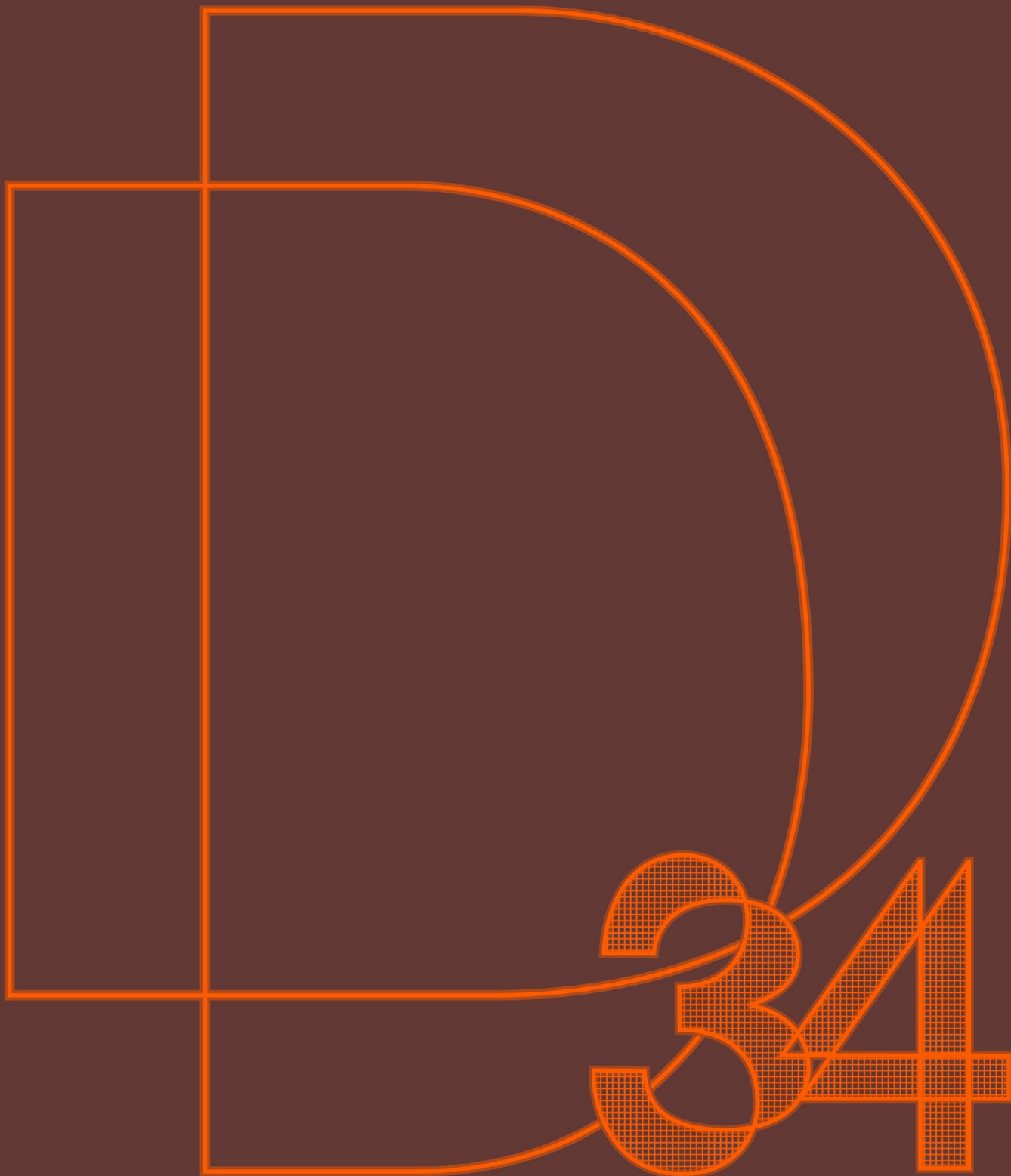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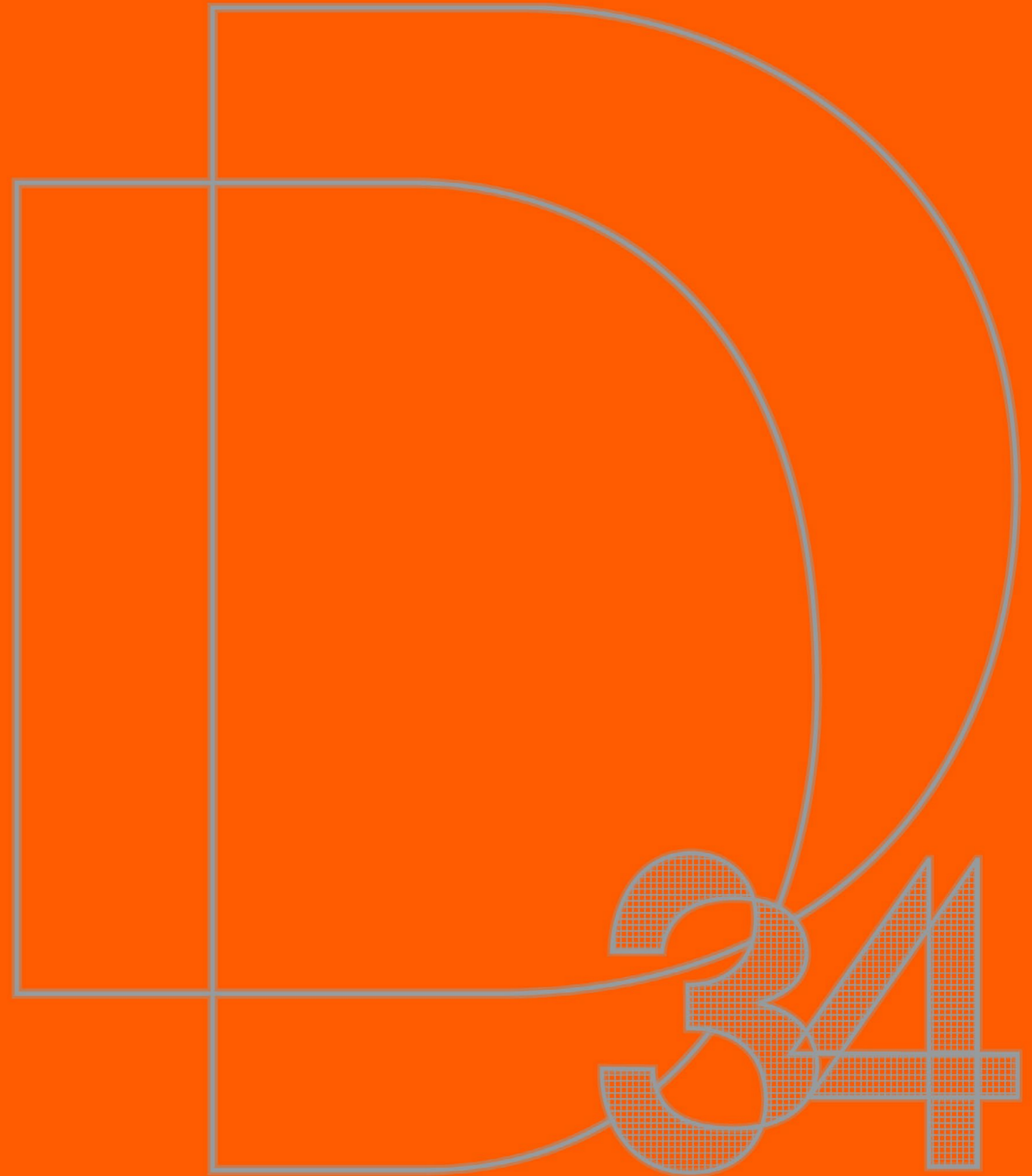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연결하는 D>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EIP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인 대전은 각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임과 동시에 국가 기술의 중심지로 다양한 산업—기술—과학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는 '연결'이라는 대전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지역과 글로벌은 물론 창조와 실현,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대전(Daejeon)과 디자인(Design)의 첫 글자인 D의 형상을 띤 무한의 고리 형태의 조형과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를 소망합니다.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

들어가며	축하의 글	대전광역시장	10
	축하의 글	대전디자인진흥원장	11
	축하의 글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 회장	12
	축하의 글	대전디자인발전교수협의회회장	13
수상	대상		20
	금상		24
	은상		28
	동상		32
	특선		42
	특별주제 (A)		81
	입선		94
운영위원·심사위원 명단	운영위원		103
	심사위원		104

01

ENTERING

축하의 글 Greeting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전국의 디자이너와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34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전디자인어워드는, 일상을 바꾸는 기술부터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가치를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생성형 AI부문은, 대전의 6대 전략 특화산업과 공공시설물 AI디자인과 융합될 때 펼쳐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미학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전시는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철학 아래, 공공건축과 시설물부터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명품디자인을 구현해 도시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 경제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의 글 Greeting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이 창 기

안녕하세요.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이창기입니다.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마무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대전시민의 가치와 지역정체성을 디자인으로 구현하며, 지난 33년간 대전의 디자인역량강화와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시민들의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들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전공공시설물 및 특화산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다수 출품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출품작들은 단순한 형태나 미적 완성도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한 결과물로서, 대전이 지향하는 미래혁신 도시로서의 비전과 가능성을 탁월하게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접근과 시민참여형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며, 디자인을 통해 지역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디자인어워드의 브랜딩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최근 아시아디자인어워드(DFA Design for Asia Awards 2025)에서 우수상(Merit Award)을 수상하며, 대전 디자인이 국제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디자인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창의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참가자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글 Greeting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이재준입니다.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고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는 차원 높은 어워드 운영으로 위상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 작품들에 지역 디자인산업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디자인기업협회 임직원들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높아진 위상과 더불어 작품의 수준이 매우 뛰어났고, 열정과 꿈을 창의성이라는 무한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박민상, 임기환 디자이너를 비롯한 많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어워드에 참여한 여러분의 수준 높은 작품이 열정과 꿈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 디자인산업발전의 역량이 충분하였음을 느꼈습니다.

대전시의 명실상부한 디자인거점 도시로서의

(재)대전디자인진흥원 역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이번 어워드 역시 그 기대의 연장선이라 말씀드리며 이러한 기대 속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축하의 글 Greeting



대전디자인발전교수협의회장
조성환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어워드는 지속가능성·기술 융합·AI 디자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 디자인의 창의성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수상작들은 환경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Bioscape 한밭, Celluna, Chronoscape, MOA 등 생성형 AI 특별주제 수상작들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미학적 협업자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는 AI와 디자인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창출하는 Alesthetic Paradigm(AP), 즉 "AI와 인간이 함께 미학을 설계하는 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로서, 디자인의 진화 방향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디자인어워드가 앞으로도 AI와 인간이 공저하는 디자인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모든 수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0202

Winner Winner

일러두기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별주제 수상작의 경우, 해당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도 함께 수록합니다.

분야별 자격조건

- ① 중·고등·전문학사·대학(원)생·일반인 부문
일반인, 기업, 디자이너 등
※박사과정은 일반인 부문으로 출품
중·고등·전문학사·대학생·석사(대학원생 포함)
※본상격 수상 시 재학증명서 제출
- ② 초대디자이너 부문
학계, 산업계 등
※학계 대전·충청지역 디자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산업계 대전·충청지역 디자인전문회사 대표
및 임원으로 종사 중인 자

출품 주제

- ① 지정주제: '대전광역시의 대전 시민들의 가치를 반영한 작품
- ② 자유주제: 제한 없음
- ③ 생성형 AI 특별주제: '대전 공공시설물' 과 '대전 특화산업' 중심의 디자인

출품 부문

- ① 제품&서비스&환경디자인
소비재, 공공, 산업재 등 제품디자인 및 서비스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 분야
- ② 커뮤니케이션&융합디자인
광고, 그래픽, CI, BI, 게임 디자인, 인문·기술 융합 디자인 등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융합 디자인 전 분야
- ③ 패션&공예 디자인
금속, 도자, 목공, 칠, 섬유 등 공예 디자인 및 패션 디자인 전 분야



대상		
20p	박민상, 임기환	놀이와 실용성을 더한 지속가능 디자인 : IKEA (MICKE) 패키지 업사이클 프로젝트
금상		
24p	노영하, 고성찬	Sleev
26p	이다원	소제동 철도관사촌 서체 '쌀임꿀'
은상		
28p	김소연, 김지연, 진수민, 권지예	ME:MEMORY
29p	박준범, 조용주, 손길승, 박나린	에어로그 (AEROG)
30p	김서현, 최지호	노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울 지하철 여행
31p	김현빈	Nest Guard
동상		
32p	서은채, 이아연, 유나	SONA -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실시간 수어 번역 앱
33p	김정빈	Feathered Figures
34p	서혜빈	별탐별담:대전의 별을 담아가다
35p	홍준석, 손재경	BRKX 브릭스
36p	고서영, 김서연	또다른 퇴근길 캠페인
37p	고나연	한국인 자존심 라볶이 냉동김밥 수출용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38p	이준형	소제회로
39p	정지우	HaloSafe-산업재해 예방용 다중감각 안전모 디자인
40p	박준범, 박나린	살라만더 - 스마트 소방헬멧
41p	유용욱, 민채아	Finger Navi
특선		
42p	한형균	Geoshift
43p	김소연, 황성진, 박민제	차경(借景)
44p	이재원, 김은채, 김민진, 채서현	한국 전통 퓨전 디저트 'HUSIK'
45p	진수민, 김지연, 장찬미, 권지예	BUNJO
46p	전현기, 한혜빈, 손동건, 박성민	손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네비게이션
47p	황서하	한국인의 정, K푸드 페스타 'BAPFULL'
48p	정기영	심장이 뛰는 임신테스트기
49p	윤정혜, 한수연	우리는 연결되고 싶다 좀 더 자연스럽게 - 모모링
50p	박나린, 구자현, 박준범	Navicane
51p	정수연	건강한 절임 마리네이드 브랜딩 '플라베따'
52p	이서령	대전 특수동물 홍보 - BI,캐릭터 디자인,굿즈 제안
53p	안혜림, 남윤지	NUBIM WARK(누빔워크)
54p	김슬기	반려식물 키트, MURUK(무럭)
55p	곽주현	걷는 감정들



56p	박신영	대전국악페스티벌 - K:Yeol(결)
57p	문지윤, 김희수, 김다을, 최선욱	대전 구무링 환경직업체험관
58p	이해민	'초록친구' 키즈 유기농 간식 브랜드 디자인
59p	유서현	제천시 축산 브랜드 제천일품육 리브랜딩
60p	전범수	라인아크
61p	전범수	이음
62p	이준형	소제 정령신앙
63p	정민혁, 박주경, 모예은, 김태희	소아당뇨 관리어플 당당
64p	조현재	대전 시민 재생 자전거 또타
65p	장현조	RE - 품 온더로드 (다시 품나게! 어디서든 리폼 ON THE ROAD)
66p	현은수, 임바다, 민차희	대전 둔산선사유적지 활성화 콘텐츠 제안 프로젝트 [우가우가 선사시대 살아남기!]
67p	이지원	작은 한 입으로 맛보는 미래 식량, ChewBugs
68p	서진혁	ABYSS
69p	강의찬, 김채은, 허문정	소제를 물들이다
70p	정모신	제웅
71p	임소연	땅이 입는 옷
72p	임정빈, 유예소, 박성하	잊혀가는 우리의 탈춤을 이어가는 브랜드, 'GYEOL'
73p	이효진	효 브랜드 두:효
74p	김지윤	잔물소비 - MZ세대를 위한 소비 습관 개선 웹사이트 디자인
75p	김수인, 윤시우, 김민정, 김차민	한국의 온기 한 잔, 한온(韓溫)
76p	김경호	끓는 자아
77p	방예림	Red Bull 광고디자인
78p	정석원	패스트 포워드 레이싱
79p	양은희, 이지은, 김남규	Hertz

생성형 AI 부문

82p	최우수상	김유민, 윤지현	Bioscape 한밭 - 생태와 기술의 풍경
85p	우수상	우재민, 서한솔, 이은주, 정지우	Celluna
88p	장려상	김유민, 윤지현	Chronoscape - 대전 시립 미술관 "시간의 미술관"으로
91p	장려상	전지원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

지도자 부문

우수 지도자상	김영호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으뜸 지도자상	허윤혜 교사(대전괴정고등학교)

GRAND PRIZE
대상

**놀이와 실용성을
더한 지속가능
디자인 : IKEA
(MICKE) 패키지
업사이클
프로젝트**

이케아(MICKE) 패키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실용적 창의성, 친환경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본 프로젝트는 패키지 박스를 단순히 폐기하는 대신, 실용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참여형 디자인의 가치를 전달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이케아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MICKE 책상을 개봉한 뒤, 패키지의 안쪽 도면을 따라 재단하면 트리케라톱스 모양의 어린이용 선반으로 만들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장을 넘어 재사용을 이끄는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박민상, 임기환

지도자
김강국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심사위원장의견
‘대상 작품’인 「놀이와 실용성을 더한 지속가능 디자인: IKEA (MICKE) 패키지 업사이클 프로젝트」는 시대적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으로, 직관적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며 재활용 완성도 또한 뛰어남. 리사이클 측면의 우수성과 아동 관점에서의 사용성,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돋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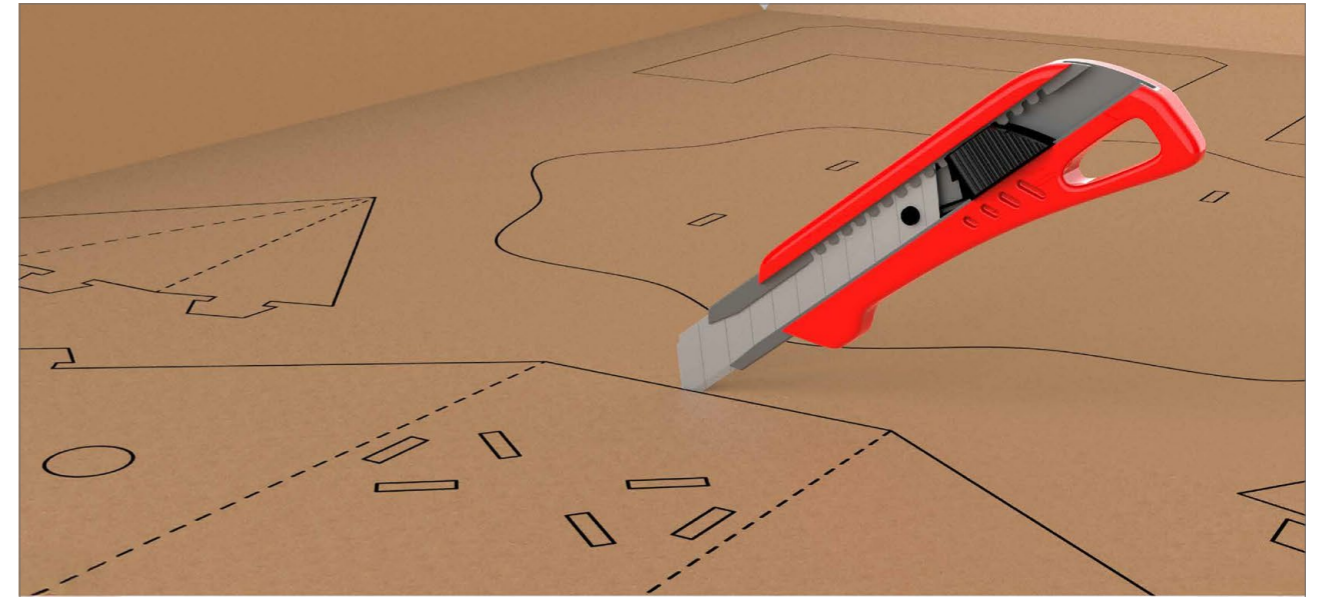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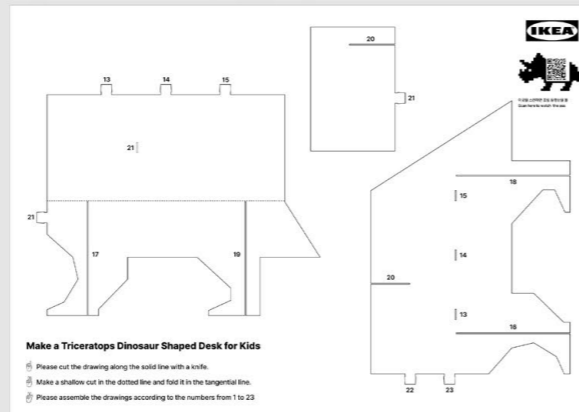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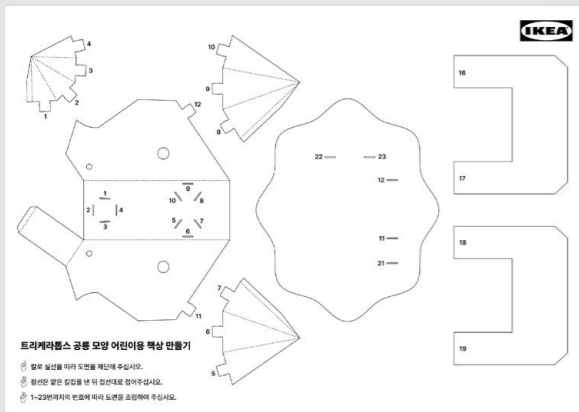
놀이와 실용성을 더한 지속가능 디자인 IKEA (MICKE) 패키지 업사이클 프로젝트



Design Background

이 프로젝트는 제품을 담고 버려지는 패키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놀이'와 '실용성'을 함께 담은 지속가능한 포장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IKEA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MIKE 책상의 패키지박스 안쪽에 사용자가 따라 자르고 조립할 수 있는 도면을 인쇄해, 제품 개봉 후 버려지는 상자가 '공룡 모양의 어린이 선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공룡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단순한 보호재에 새로운 기능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놓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rawing manual



GOLD PRIZE
금상

Sleev

Sleev는 일상 속에서 자립적인 팔 움직임을 지원하는 상지 보조 로봇입니다. 기존 보조기기의 복잡한 sEMG 기술, 투박한 디자인, 외부 도움 없이는 착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1. 적절한 기술로 다가가기: Sleev는 IMU 센서로 관절 각도를, FMG 센서로 근육 팽창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 기술들은 피부 접촉 없이 작동하며, 기존 대비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센서는 스트랩 내부에 내장되며,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S/M/L로 나뉘며 20-80세, 5-95분위의 사용자를 포괄합니다. (사이즈 코리아 기준)

2. 일상과 어울리는 디자인: Sleev는 심미적·구조적으로 일상의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의도합니다. 팔이 굽는 안쪽과 팔꿈치가 돌출되는 바깥쪽은 제품의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FMG기술은 얇은 이너웨어 위에도 착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일상의 맥락을 고려한 사용성: 사용자는 기기를 거치대에 올려 한 손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일상 루틴은 보이스 액션 커맨드로 설정할 수 있고, 재활 운동 모드로 일상의 복귀를 돕습니다.

Sleev는 복잡함을 줄이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상지 보조 솔루션으로, 회복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디자이너
노영하, 고성찬

지도자
진한빛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GOLD PRIZE
금상

소제동 철도관사촌 서체 '쌓임꼴'

쌓임꼴은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모티브로 제작된 한글 서체입니다.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품은 역사적인 공간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희노애락을 담고있는 공간입니다. 철도관사촌은 일제강점기 일본 철도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일본가옥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개조되고 증축되며,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제동은 재개발로 인해 철도관사의 일부가 철거가 될 예정이며, 관사촌의 원형은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쌓임꼴 서체는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의미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흔적, 그리고 우리나라 선조들의 손길이 담긴 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글자 하나하나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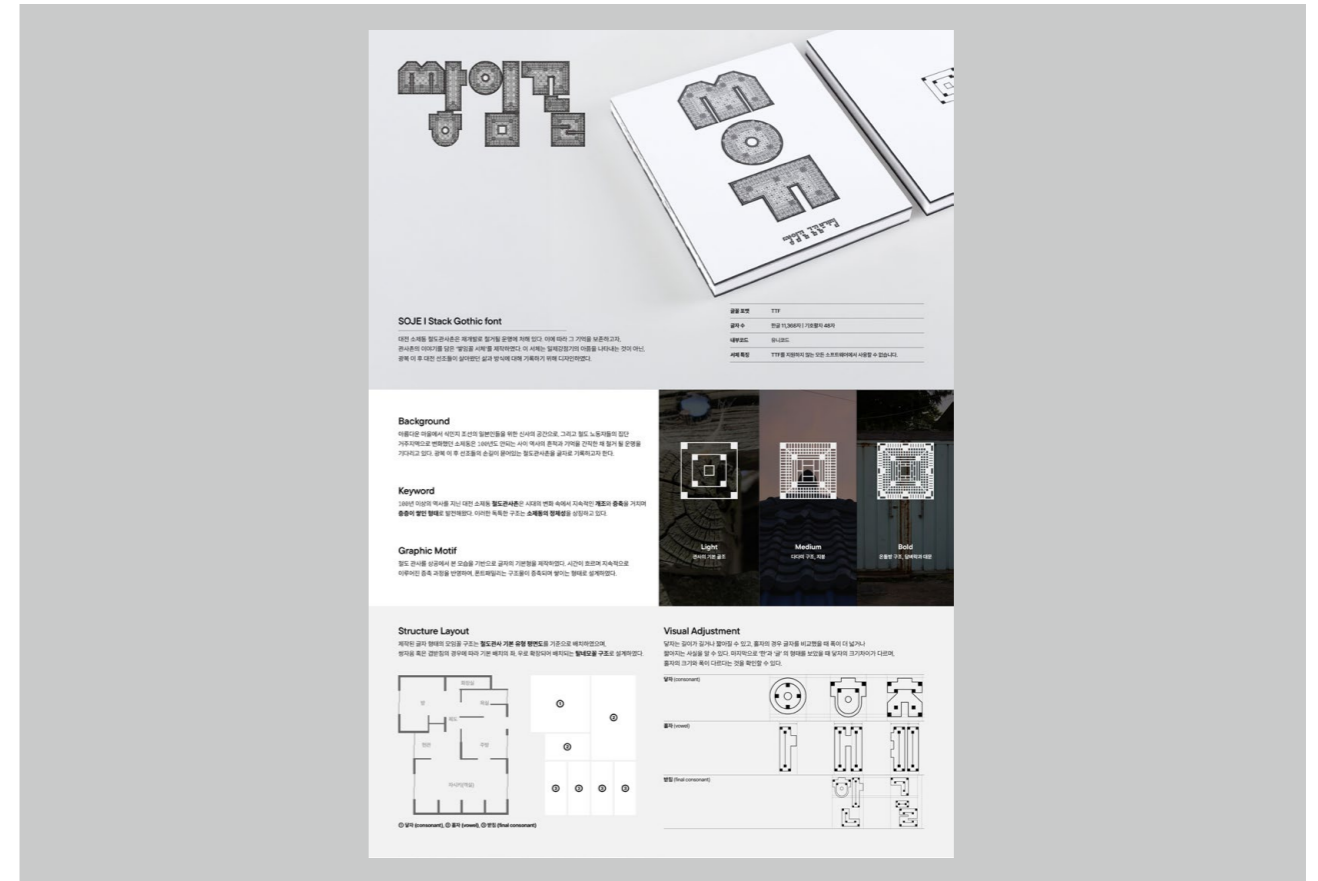
쌓임꼴 서체는 라이트, 미디엄, 볼드의 세 가지 폰트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의 차이가 아닌 구조물이 덧대어지고 증축되며 밀도가 높아지는 모습에서 착안해 표현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글자를 보았을 때 시간의 흐름과 축적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체에는 철도관사촌 건물의 기본 골조, 지붕, 방의 구조, 담벼락과 대문 등의 건축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소제동 철도관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총 11,800여 자로 구성된 쌓임꼴 서체는 문자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공간의 기억과 사람들의 삶을 시각 언어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쌓임꼴은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 선조들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오늘날에도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이다원

지도자
김어진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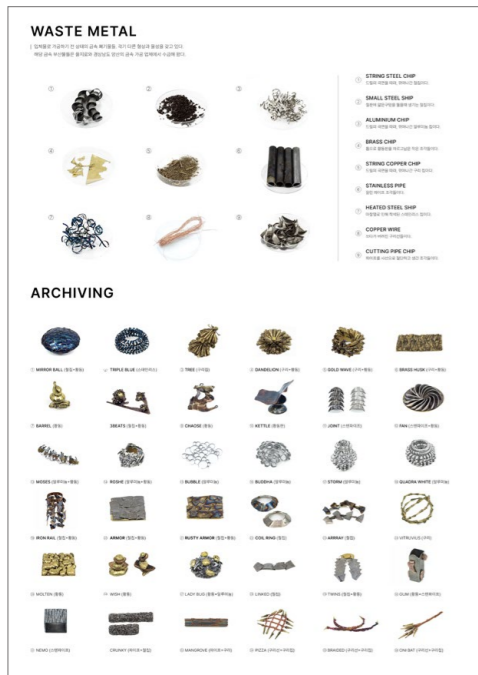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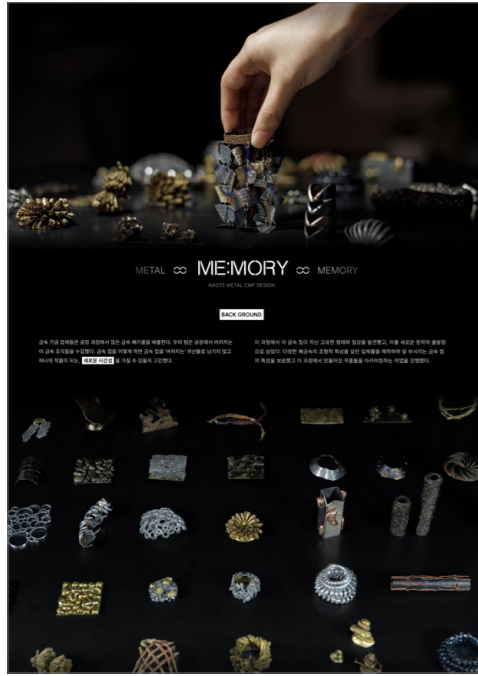


SILVER PRIZE 은상

ME:MEMORY

디자이너
김소연, 김지연,
진수민, 권지예

출품분야
패션&공예 디자인



금속 가공 업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금속 폐기물을 배출한다. 철삭, 연마, 절단 등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생겨나는 금속 칩은 그 자체로 산업의 부산물로 인식되어, 대개 재활용 공정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버려지는 운명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 팀은 이러한 ‘버려지는’ 금속 조각들 속에 단순한 폐기물 이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공장에서 직접 폐금속 칩을 수거했고, 다양한 형태의 금속 칩들을 관찰했다. 각각 금속 칩이 지닌 불규칙한 곡선, 날카로운 단면, 빛을 반사하는 표면 질감 등에서 독특한 조형적 잠재력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금속 칩을 단순한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재료로 전환하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시간성’이다. 산업 현장에서 금속 칩은 구석에 쌓여 오랫동안 방치된다. 많은 예술 작품도 하나의 장소에서 오랫동안 전시되는 시간적 특징을 지니는데, 우리 팀은 이 금속 칩에 이러한 시간성을 부여하고 싶었다. 우리가 금속 칩을 수집해 새로운 맥락에서 다루는 순간, 산업의 부산물에서 예술적 오브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사라질 운명이었던 재료에 또 다른 생애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작업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각 금속 칩이 지닌 형태와 크기, 무게감, 그리고 재질별 특성을 면밀히 살폈다. 알루미늄, 구리, 황동, 철 등 금속의 종류에 따라 표면의 질감과 색감이 다르게 드러났고, 잘 부서지는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하거나, 지지 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실험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입체물은 단순히 금속 조각의 집합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 현장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해석된 오브제다. 우리가 제작한 작품들은 금속 칩 특유의 조형성을 살리면서도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디자인했다. 이는 단순한 재료 재활용을 넘어, 산업과 예술의 경계에서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도다. 또한, 각각의 작품에는 수집된 금속 칩의 출처, 제작 과정, 변형 방식 등을 기록하여 아카이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완성된 40여개의 작품은 단순히 완성된 형태만 아니라, 그 재료가 지닌 시간과 여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ME:MEMORY 프로젝트는 금속 칩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생산과 폐기, 소모와 재탄생이라는 순환 구조 속에서 예술과 디자인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 잘 부서지고 쉽게 잊히는 부산물이 창작의 중심 재료로 자리할 때, 우리는 재료에 대한 인식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시간성까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결국 이 작업은 금속 칩을 ‘버려지는 것’에서 ‘기록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물의 생애와 의미를 확장하는 실험이다.

SILVER PRIZE 은상

에어로그 (AEROG)

디자이너
박준범, 조용주,
손길승, 박나린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Aerog (에어로그)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위한 시로보틱스 버드스트라이크 방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멀지않은 미래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하늘의 안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이 도심 상공을 비행할 때,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변수는 바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입니다. 저고도에서 운항하며 프로펠러가 오픈된 uam은 버드스트라이크에 치명적입니다. 'Aerog'는 이 새로운 시대의 안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시 기반의 능동형 버드스트라이크 방지 솔루션입니다.

'Aerog'의 디자인 철학은 '선제적 예방'과 '지속가능한 공존'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UAM 관제 시스템(UTM)과 직접 연동하여, eVTOL의 비행 스케줄에 맞춰 이착륙장(Vertiport) 주변 공역에 대한 자동 감시를 시작합니다. 레이더, 라이더, 시비전 기술이 융합된 다중 센서 시스템은 공역을 입체적으로 스캔하여 높은 정확도로 조류의 출현과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식별합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Aerog'는 지능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시스템은 먼저, 조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무소음 그린 레이저를 활용해 부드럽게 경로 변경을 유도합니다. 만약 위협이 지속될 경우, 조류의 학습 및 습관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지향성 랜덤 주파수 음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 다층적 대응 시스템은 불필요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존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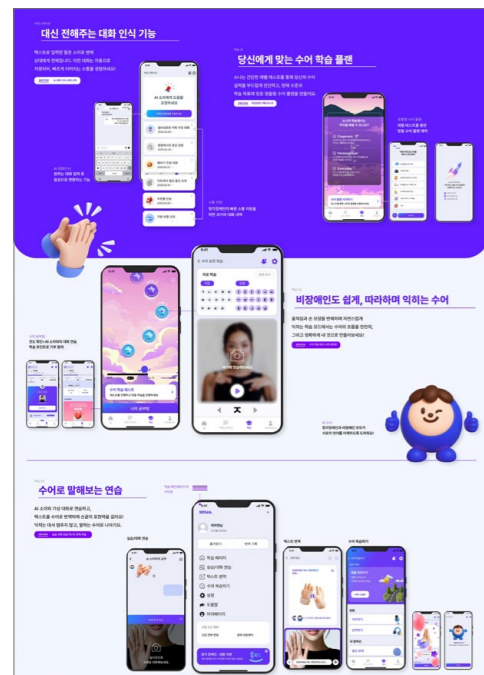
'Aerog'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모든 감지 및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시가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시간대, 기상, 조류의 종류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퇴치 전략을 스스로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Aerog'는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생태학적 디자인을 결합하여 미래 도시의 하늘길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데이터로 설계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안전한 이동을, 자연에게는 평화로운 공존을 제공하는 차세대 안전 인프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BRONZE PRIZE 동상

SONA -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실시간 수어 번역 앱

디자이너 서은채, 이아연, 유나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동상 Bronze Prize

‘SONA’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 장벽을 허물기 위해 개발된 실시간 수어 번역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의 수어 번역 서비스는 기술적 제약과 복잡한 사용 방식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으며, 실시간 대화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SONA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와 최신 AI 기반 실시간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전 연령·전 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앱 실행 후 사용자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탭 한 번’으로 번역 기능에 진입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수어를 인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실시간으로 텍스트와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나 음성은 즉시 수어 영상으로 변환되어 청각장애인에게 보여진다. 이 양방향 번역 기능을 통해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며, 실제 대면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SONA는 단순한 번역 기능을 넘어, 수어 학습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수어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어·문장별 수어 학습, 퀴즈형 연습,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비장애인의 수어 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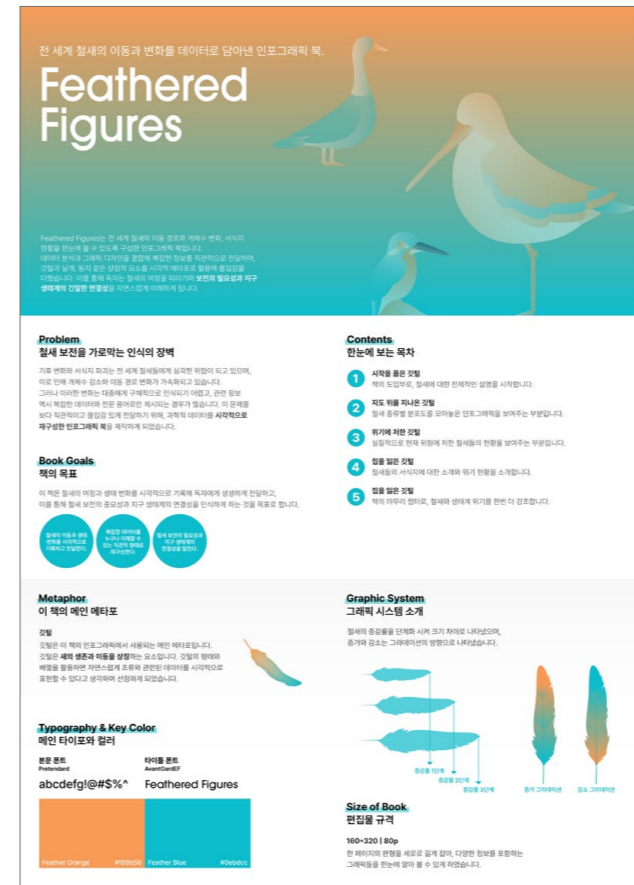
기술적으로는 고해상도 영상 인식과 딥러닝 기반의 수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인식률을 유지한다. 조명, 배경, 손동작의 속도 변화 등 실제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대화 데이터는 자동 저장되어 사용자가 이전 대화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

SONA의 핵심 가치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접근성에 있다. 복잡한 메뉴나 설정 없이 바로 번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일상 속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SONA는 공공기관, 병원,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국어 수어 번역 기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단순한 앱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잡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32

BRONZE PRIZE 동상 Feathered Figures

디자이너 김정민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33

Feathered Figures는 전 세계 철새의 이동 경로, 개체수 변화, 서식지 현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인포그래픽 북입니다.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한 철새의 위기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인 시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철새의 연간 이동 여정을 따라가며 경로 지도, 개체수 변화 그래프, 서식지 위협 분석, 보전 활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배치해 독자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서는 깃털, 날개, 동지 등 철새를 상징하는 메타포를 그래픽 요소로 활용하여 시각적 통일성과 몰입감을 높였으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 다양한 독자층과의 소통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Feathered Figures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철새를 매개로 지구 생태계의 연결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철새의 비행이 지구 환경 변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깨닫고, 그 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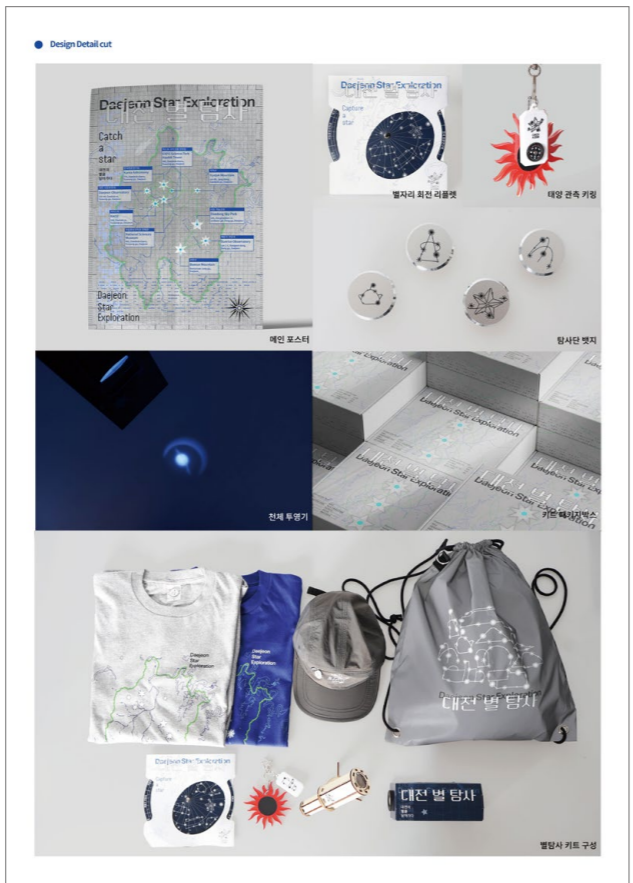
동상 Bronze Prize

BRONZE PRIZE 동상

별탐별담: 대전의 별을 담아가다

디자이너 서혜빈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별탐별담은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별 탐험가가 되어 도시 전역의 별 관측 명소를 탐방하는 관광 키트입니다. 대전 밤하늘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며 방문객만의 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를 특별한 기념품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시라는 대전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이 키트는 기존 주간 중심의 관광 패턴을 야간으로 확장시켜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BRONZE PRIZE 동상

BRKX 브릭스

디자이너 홍준석, 손재경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BRKX는 도심에 방치된 포트홀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1인 운용 휴대형 보수 장비입니다. 경량 구조로 설계되어 한 사람이 손쉽게 운반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작업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KX를 포트홀 상단에서 가동시키면 지면 상태에 맞춰 각각의 지지대를 자동으로 확장해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TOF 카메라로 포트홀을 스캔합니다. 이후 내부 공간에 있는 유제와 아스팔트를 노즐을 통해 정밀하게 분사하고 포설하여 빠르고 정확한 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치 상단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수재 잔량, 배터리 상태, 작업 진행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용이합니다.

BRKX는 대규모 장비나 인력 없이도 응급 보수를 수행할 수 있어, 지자체 및 도로 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BRKX는 변화하는 도시 인프라 환경에 대응하는 차세대 도로 보수 제품입니다.



BRONZE PRIZE 동상

또다른 퇴근길 캠페인

디자이너: 고서영, 김서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도시 속 야생동물들은 우리와 같은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 이용하는 생태통로 역시 단순한 구조물로 여겨지며 그 의미는 쉽게 잊힙니다.

‘또다른 퇴근길’ 캠페인은 대전 마달령생태통로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도시의 또다른 주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조명합니다. 시민이 그들의 이동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여 생태통로를 도심 속 공존을 상징하는 감정적 매개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상 Bronze Priz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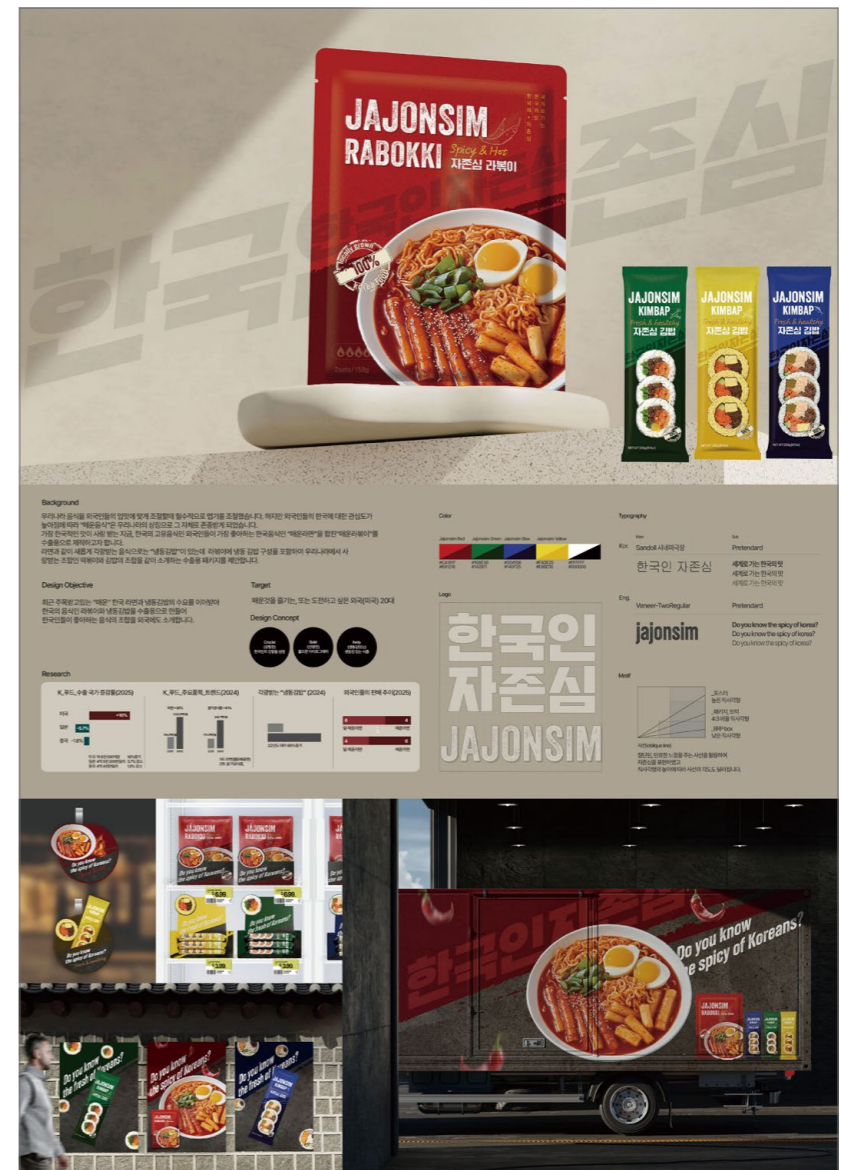
BRONZE PRIZE 동상

한국인 자존심 라볶이 냉동김밥 수출용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이너: 고나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할때 필수적으로 맵기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운음식"은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그 자체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이 사랑 받는 지금, 한국의 고유음식인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인 "매운라면"을 합친 "매운라볶이"를 수출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라면과 같이 새롭게 각광받는 음식으로는 "냉동김밥"이 있는데 라볶이에 냉동 김밥 구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조합인 떡볶이와 김밥의 조합을 같이 소개하는 수출용 패키지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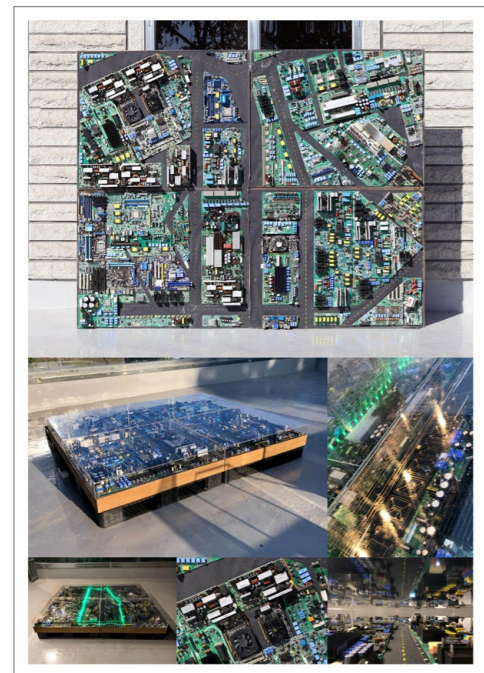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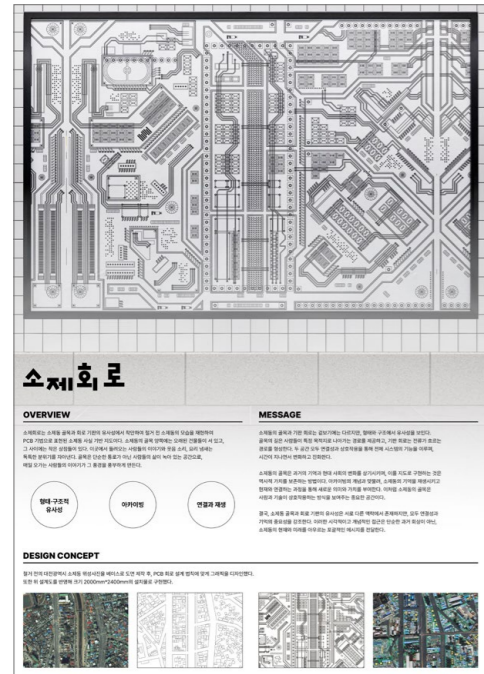
37

동상 Bronze Prize

BRONZE PRIZE 동상

소제회로

디자이너 이준형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소제회로는 소제동 골목과 회로 기관의 유사성에서 착안하여 철거 전 소제동의 모습을 재현하여 PCB 기관으로 표현된 소제동 사실 기반 지도이다.

소제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양쪽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이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 요리 냄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골목은 단순한 통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매일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풍경을 풍부하게 만든다. 소제동의 골목과 기관 회로는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형태와 구조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골목의 길은 사람들이 특정 목적지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공하고, 기관 회로는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형성한다. 두 공간 모두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이루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진화한다.

소제동의 골목은 과거의 기억과 현대 사회의 변화를 상기시키며, 이를 지도로 구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아카이빙의 개념과 맞물려, 소제동의 기억을 재생시키고 현재와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이처럼 소제동의 골목은 사람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결국, 부품을 통한 전기 연결과 소제동의 재생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존재하지만, 모두 연결성과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의 흔적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BRONZE PRIZE 동상

HaloSafe 산업재해 예방용 다중감각 안전모 디자인

디자이너 정지우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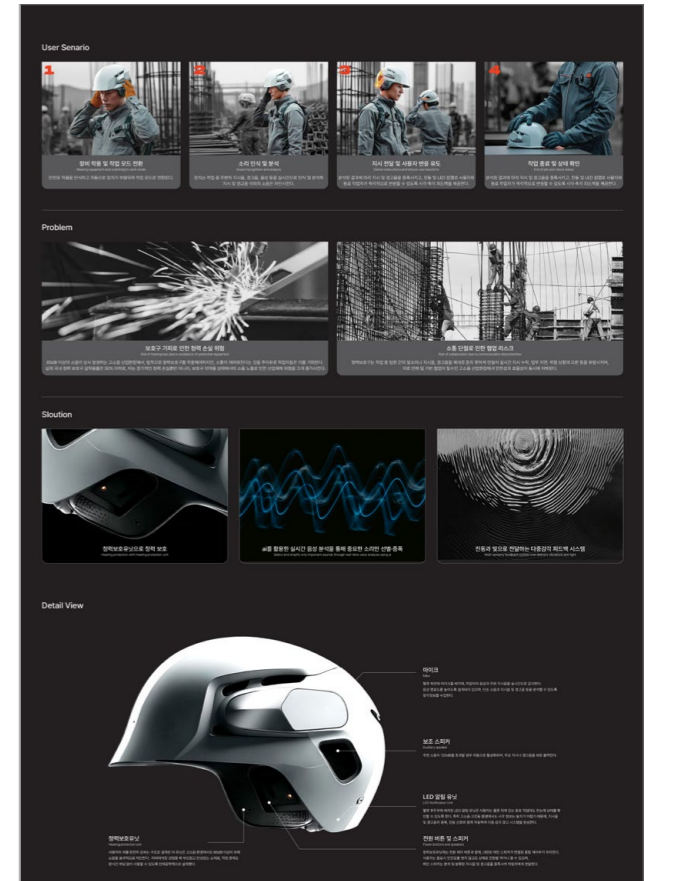
지도자 조성환



HaloSafe는 고소음 산업환경에서 작업자의 청력 보호와 즉각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안전모입니다. 본 제품은 시 기반 음향 인식 기술을 통해 현장 내 다양한 소리 중 중요한 지시음 및 경고음을 선별·분석하고, 이를 시각(LED)과 촉각(진동) 이중 피드백으로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청각 인지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기존 산업용 안전모가 수동적 청력 보호에 머무는 반면, HaloSafe는 능동적 신호 감지와 반응을 통해 의사소통 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경고음 인지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협업이 많은 건설현장 등에서 귀마개 착용으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작업 몰입도와 안전성 모두를 향상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색상 변환 장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청각 한계를 대체하는 다감각 보조 시스템이라는 접근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술적 전환은 감각 보조 개념에 기반하며, 단순 경고 전달을 넘어 신체 감각을 통한 인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HaloSafe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질적 목적 아래, 기능성과 인간 감각의 상호작용을 디자인 요소로 통합한 제품으로, 기술-디자인-인간 경험의 교차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BRONZE PRIZE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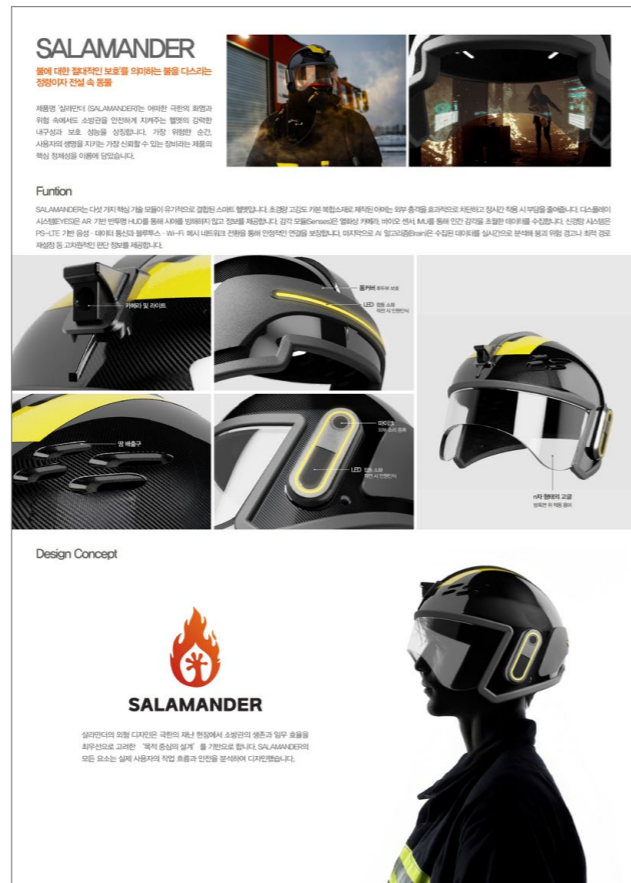
살라만더 스마트 소방헬멧

디자이너 박준범, 박나린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살라만더(SALAMANDER)는 단순한 소방 헬멧이 아닌, 소방관의 감각을 확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는 통합 재난 대응 플랫폼입니다.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고정밀 센서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사용자인 소방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능동적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상 Bronze Priz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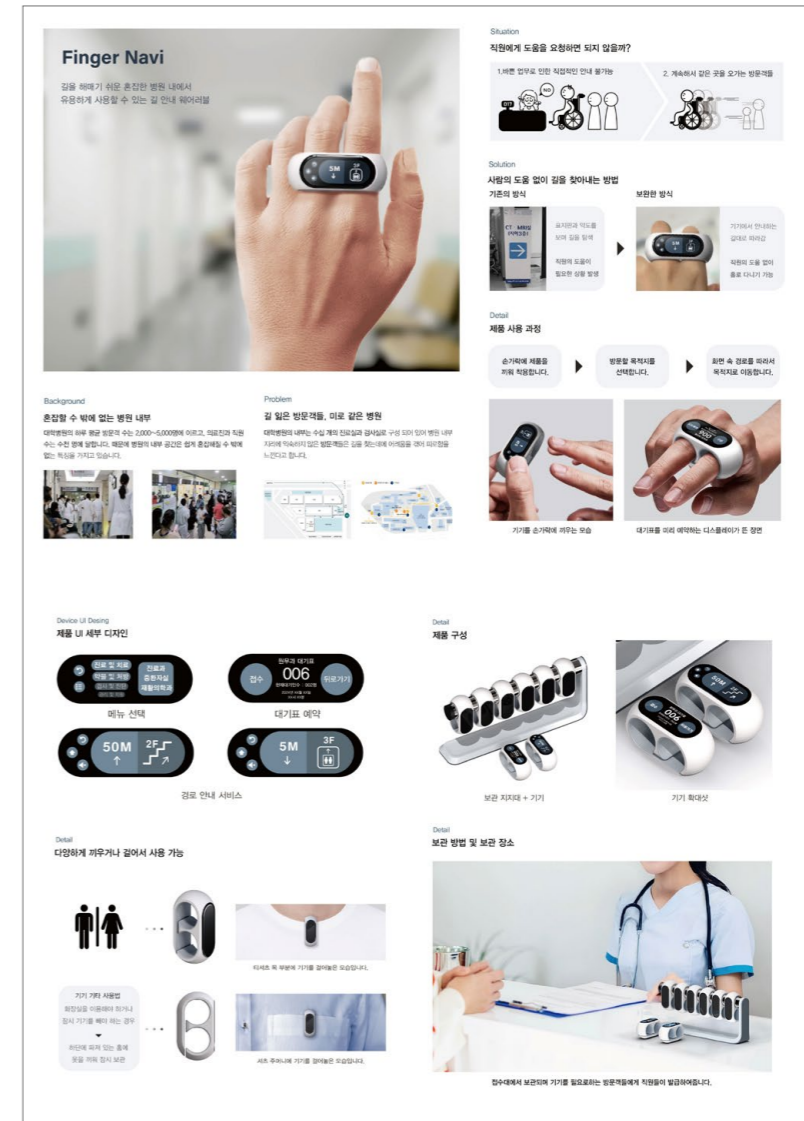
BRONZE PRIZE 동상

Finger Navi

디자이너 유용욱, 민재아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FingerNavi는 대형 병원 내에서 방문객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착용형 내비게이션 디바이스입니다. 병원은 일일 방문자 수만 수천~수만 명에 이르며, 복잡한 구조와 전문 용어로 인해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초행길 방문객에게는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 기기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실시간 경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병원 내 주요 진료과, 검사실, 원무과 등 다양한 목적지를 음성과 시각 정보로 안내하며, 진동 알림 기능을 통해 직관적인 길 안내가 가능합니다. UI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메뉴 선택, 대기표 예약, 경로 안내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손가락 외에도 목걸이형, 명찰형으로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병원 데스크에 비치되어 간단한 대여·반납이 가능하며, 직관적인 거치대와 충전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도 고려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복잡하고 낯선 공간에서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내 인력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전반적인 병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41

동상 Bronze Prize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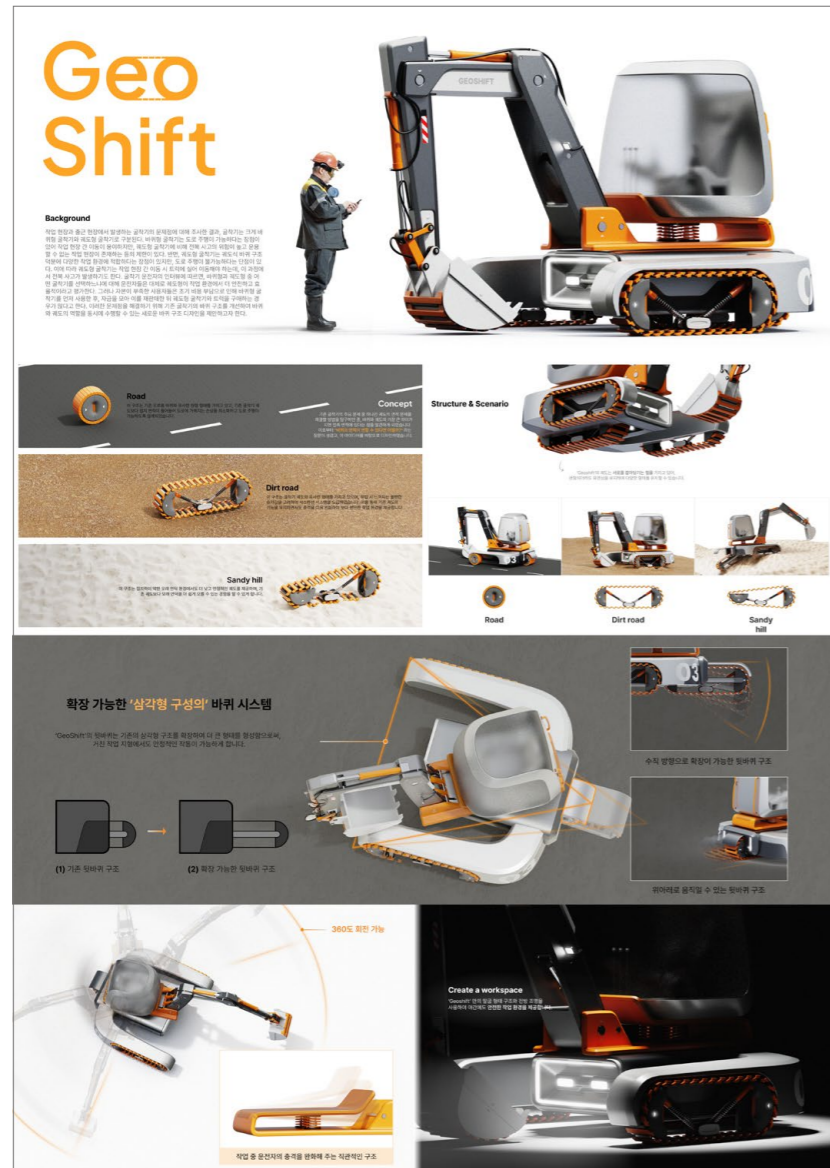
특선

Geoshift

작업 현장과 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굴착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굴착기는 크게 바퀴형 굴착기와 궤도형 굴착기로 구분된다. 바퀴형 굴착기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작업 현장 간 이동이 용이하지만, 궤도형 굴착기에 비해 전복 사고의 위험이 높고 운용할 수 없는 작업 현장이 존재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반면, 궤도형 굴착기는 궤도식 바퀴 구조 덕분에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궤도형 굴착기는 작업 현장 간 이동 시 트럭에 실어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굴착기 운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퀴형과 궤도형 중 어떤 굴착기를 선택하느냐에 대해 운전자들은 대체로 궤도형이 작업 환경에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사용자들은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바퀴형 굴착기를 먼저 사용한 후, 자금을 모아 이를 재판매한 뒤 궤도형 굴착기와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굴착기의 바퀴 구조를 개선하여 바퀴와 궤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바퀴 구조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자인
한형균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WINNER

특선

차경(借景)

차경(借景)은 현대 도시 주거환경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자연 인지와 시간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된 금속 공예 기반의 리빙 오브제다. 과거 인류의 생활은 해의 움직임과 함께 흘렀다.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우리는 빛의 방향과 색,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 시간을 느꼈다. 그러나 오늘날, 겹겹이 들어선 고층 건물과 과밀화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제한된 빛만으로는 하루의 흐름을 가능하게 어렵다. 인공조명의 균일한 밝기 속에서 우리는 낮과 밤의 차이를 잊고, 시간의 연속성을 체감할 기회를 잃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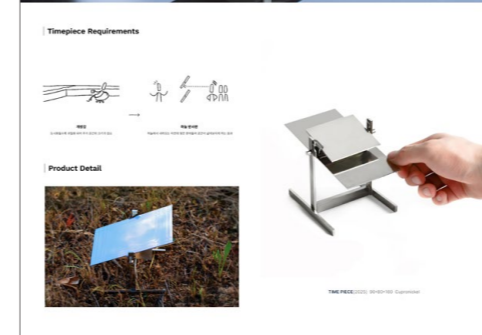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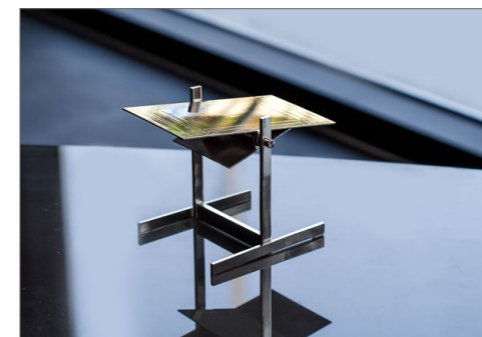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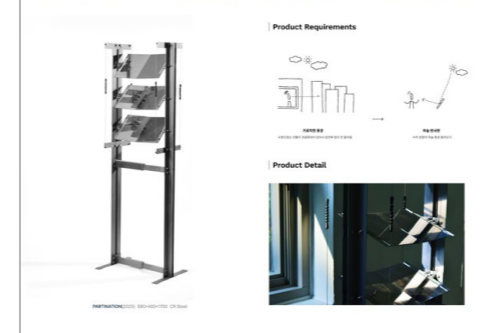
디자인
김소연, 황성진,
박민제

출품분야
패션&공예 디자인

차경은 이러한 단절된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부 하늘의 빛과 색을 금속 반사면 통해 받아들인다. 이 반사면은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하늘빛을 실내 공간에 투영하며, 사용자가 공간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차경(借景)'이라는 이름은 동아시아 전통 건축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집 외부의 풍경을 빌려와 내부에서 향유하는 방식을 뜻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문과 창을 액자처럼 활용해 변화하는 자연을 생활 속에 들였고, 그 속에서 계절과 시간을 함께 호흡했다. 현대의 차경은 이러한 전통을 수직 방향의 하늘을 들이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밀폐된 도시 주거 공간에도 개방감을 부여한다.

차경 파티션의 모티프가 되는 작품인 '타임 피스'(Timepiece)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풍경을 담아내는 장치다. 회전 구조를 통해 반사면의 각도가 변화하면서, 하루 동안 달라지는 빛과 색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빛의 변화로 시간을 가늠할 수 있고, 잊힌 자연의 시간성을 생활 속에서 다시 느낄 수 있다. 전통적 개념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거울로 사용했던 전통적 소재인 백동판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타임 피스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오브제를 넘어, 흐르는 시간을 '빛의 변화'라는 감각적 경험으로 번역하는 장치다.

차경 파티션은 타임 피스의 개념을 공간 구조에 적용한 사례다. 파티션은 빛을 통과시키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동시에 수직 방향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한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금속 면은 회전을 통해 시야를 조절하며, 외부의 시선을 가리면서도 하늘과 빛은 실내로 들인다. 벽 고정 없이 하중 분산 구조로 설계되어 설치가 간편하고, 창외 공간 조건에 맞춰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금속의 정교한 마감은 조형미와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어, 실내 인테리어 오브제로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차경, 타임 피스, 그리고 파티션은 모두 '자연의 빛과 시간을 도심 속에 다시 불러들이는 장치'라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한다. 이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거나 시야를 조절하는 기능을 넘어,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의 여백을 제공한다. 그 순간,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잊고 있던 자연과 다시 연결된다.



WINNER

특선

한국 전통 퓨전 디저트 'HU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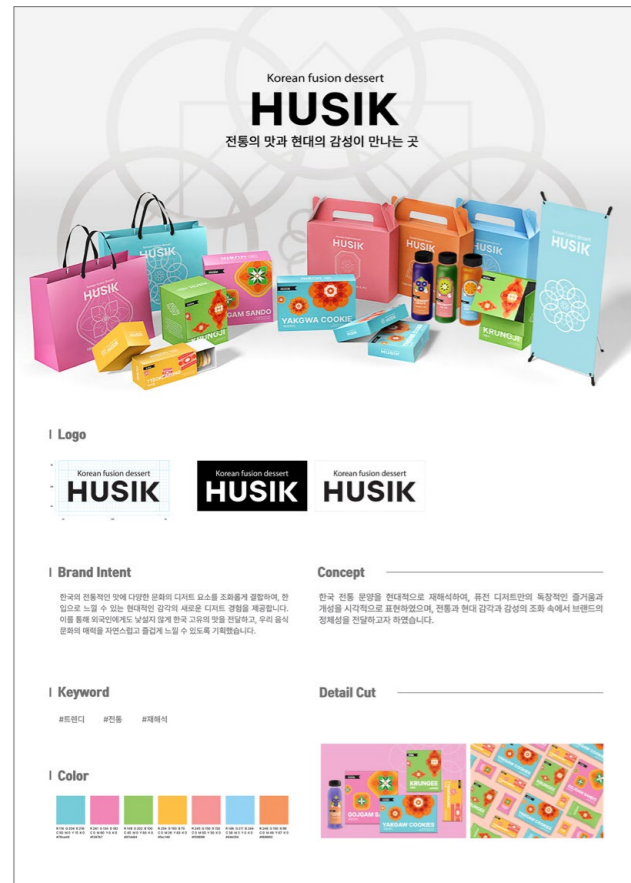
디자이너
이재원, 김은채,
김민진, 채서현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지도자
김정훈

‘후식(HUSIK)’은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감각적인 퓨전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디저트’라는 서양적 개념과 ‘후식’이라는 동양적 정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미학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후식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디저트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미식 경험과 시각적 즐거움, 철학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각 디저트의 개성과 전통적인 원료를 기반으로, 고유한 정체성과 의미를 기하학적인 문양과 형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제품별 주요 문양은 한국 전통 문양의 해체와 재구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디저트의 구조와 맛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과 쿠키’는 겹겹이 쌓인 꽃 문양을 통해 겹겹이 배인 전통의 맛을 표현하고, ‘꽃감산도’는 단면 구조와 격자형 도형을 활용해 정갈한 단면미를 강조했습니다. 컬러 시스템은 제품별 원재료에서 추출한 색상과 현대적 파스텔 톤을 조합해, 전통과 트렌디함의 조화를 시각화했습니다. 패키지는 선물용과 개별 구매용을 고려해 박스형, 슬리브형, 휴대형 병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 전체에 동일한 문양 원칙과 레이아웃 그리드를 적용해 브랜드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후식은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디저트를 통해, ‘한국형 감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음식 그 자체를 넘어, 디저트를 하나의 미적 매체로서 풀어내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WINNER

특선

BUNJO

디자이너
진수민, 김지연,
장찬미, 권지예

출품분야
패션&공예 디자인



‘번조(BUNJO)’는 세종 조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테라코타 아로마 디퓨저입니다. 중앙의 오목한 홈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리면 서서히 스며들며 은은한 향이 퍼지고, 따뜻한 질감과 색감을 통해 섯골 가마터와 숯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세종 조치원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읍으로, ‘섯골’이라 불리는 마을에는 도자기와 숯을 굽던 가마터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는 점차 잊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에서 출발해 섯골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품 제작에는 조치원의 두 지역에서 채집한 흙을 사용했습니다. 가마터의 따뜻한 이미지는 황토로, 숯의 깊은 색감은 어두운 흙으로 표현했습니다. 채집한 토양은 백자 슬립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해 시편을 제작하며 색상과 질감을 실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6가지 색상을 완성했습니다. 본체와 트레이는 분리 제작해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며, 트레이의 밑면은 유약처리를 하여 굽히거나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번조’는 조치원의 흙과 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오브제로, 사용자가 향과 촉감, 색감을 통해 일상에서 섯골의 역사와 정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WINNER

특선

손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네비게이션

디자이너
전현기, 한혜빈,
손동건, 박성민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특선 Winner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는 순간을 떠올렸다.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가 있는 세상이라 해도, 실제로 이동하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비나 눈으로 덮인 보도, 갑작스레 나타나는 장애물, 복잡한 실내와 사람들 속에서 흰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우리는 이런 한계를 마주하며, ‘혹시 시각장애인에게 직관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안내를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손이 옆에서 팔을 잡고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는 듯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팔뚝 밴드, ‘손길’을 만들었다.

손길은 팔에 착용하는 촉각 기반 웨어러블 네비게이션이다. ‘손길’은 ‘잡아주는 손’과 ‘안내하는 길’을 결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사용자가 움직일 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했고, 앞뒤로 탑재된 시 영상인식 카메라가 전방과 후방의 위험을 살펴준다. 위험이 감지되면 진동 모듈이 작동한다. 특정 목적지에 도착하면 진동이 두 번 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고 진동 한 번이 팔에 전해진다. 방향 안내 시, 압착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며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길을 인지하는 순간, 사용자는 방향을 ‘들은’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이 된다. 여기에 스피커 안내가 더해져, 위험할 때는 음성으로 즉각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손길은 장시간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착용 구조와 소재를 설계하였다.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를 사용해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하고, 토글 버튼 하나로 손만으로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충전 역시 무선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져, 패드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케이블 연결 없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손길은 단순히 기술적인 보조 장비가 아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누군가 옆에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 감각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이다. 안전하고 직관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속에 따뜻함을 담았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도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닌 세상이다. 손길은 그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줄 것이다.

46

WINNER

특선

한국인의 정, K푸드 페스타 ‘BAPFULL’

디자이너
황서하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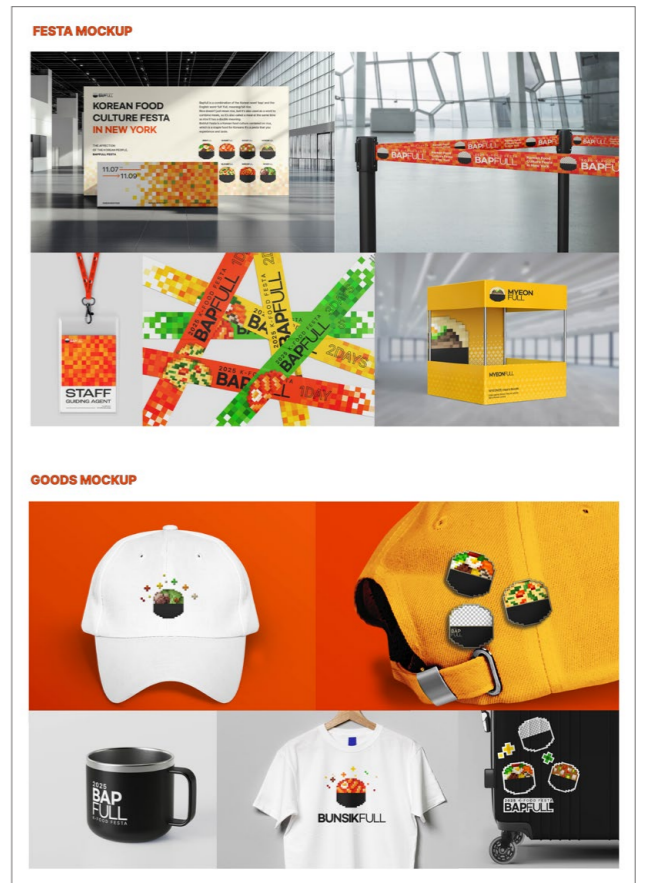
지도자
정무환



47

BAPFULL은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고 맛보는 페스타입니다. K-문화 콘텐츠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이 담긴 일상속의 맛은 여전히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밥풀 페스타는 한식을 글로벌로 이끌어주며 우리의 정과 식문화를 전달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밥풀은 한국어 ‘밥’과 영어 Full(가득)을 합성하여 ‘밥을 가득 먹다, 담다’의 의미담고 있습니다. 밥은 단순 쌀밥을 넘어 식사를 어우르는 말로도 사용되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봉밥을 연상하는 페스타 이는 그릇을 고정된 형태로 두고 쌀밥 형태의 도트가 음식에 맞게 변화하는 플렉서블 구조입니다. 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지만, 부식을 통해 여러 음식을 결합하여 먹거나, 밥을 대신하여 다양한 음식을 즐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밥풀은 그 다양성을 담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투형 레이어, 도트를 기반으로 플렉서블 컬러와 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식문화를 전개합니다.



특선 Winner

WINNER
특선

**심장이 뛰는
임신테스트기**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시기가 늦춰진만큼 불임으로 상처를 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줄, 두줄로 표현되는 임신 테스트기에 주목했고, 이성적으로만 판단되는 한 줄, 두 줄에 감정을 넣으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면 심장박동을 보여주면 생명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한줄, 두줄로 표현되는 감정이 없는 임신 테스트 키트에 심장박동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행복한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아제약을 더욱 신뢰하고, 탐오브마인드로 인식의 포지셔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
정기영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WINNER
특선

**우리는
연결되고 싶다
좀 더 자연스럽게
- 모모링**

모모링(Momoring)은 기존 만남 어플이 가진 외모 중심, 연애 목적, 과도한 진지함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대화 중심의 가벼운 만남 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소셜 플랫폼입니다. '모임(Moim)', '모먼트(Moment)', '연결(Ling)'의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사람과 사람이 소중한 순간에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모링에서는 인연을 찾기 전, 캐릭터 '두모'가 사용자에게 간단한 인적사항과 만남 유형, 성향,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취미에 관한 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필 작성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AI 심사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내에는 '모임 핫플 찾기' 기능이 있어 새로운 만남 장소를 쉽게 탐색할 수 있고, 웃 고민이나 연애 상담처럼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취미와 가치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매칭을 시스템을 통해, 매주 가장 잘 맞는 인연 3명을 추천함으로써 의미 있는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모링은 단순히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짧은 점심시간이나 커피 타임 같은 소중한 순간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확장하는 문화를 제안합니다. 외모보다 성향과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진입 장벽을 낮춘 친근한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만남 서비스가 가진 음습하거나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개방적인 연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윤정혜, 한수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WINNER Navicane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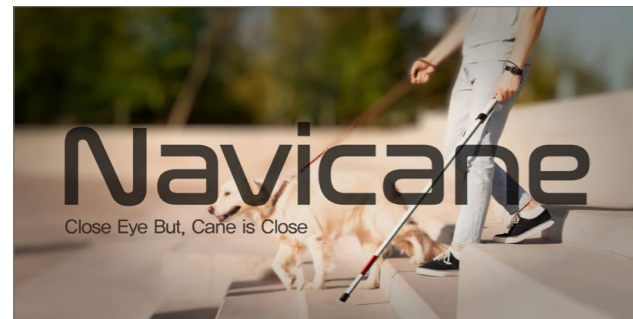
디자이너
박나린, 구자현,
박준범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네비케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보행 보조 지팡이로, 안전한 이동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 보행 보조 기능에서 나아가,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경로 저장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목적지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진동 피드백을 통해 방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동은 직진 시 양쪽 모듈, 좌회전 시 왼쪽 모듈, 우회전 시 오른쪽 모듈에서 각각 제공되어, 시각·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방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 아래에 위치한 점자 다이얼을 통해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으며, 다이얼 위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시각장애인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접이식 구조로 설계되어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며, 마그네틱 자석 고정 방식을 적용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특히, 유도블록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길 안내가 가능해, 실제 도시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네비케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UX와 실질적인 보행 안전을 고려한 제품으로, 보조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Background

가장 보편적인 시각장애인의 이동 보조 수단인 지팡이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Problem

가장 보편적인 시각장애인의 이동 보조 수단인 지팡이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Solution



By your side, light any time

네비케인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보행 보조 지팡이로,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길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Navicane

WINNER 건강한 절임

특선

디자이너
정수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건강한 절임 마리네이드 브랜딩 '플라베따'



마리네이드 소개

마리네이드는 '절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재료의 맛과 향을 보존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며,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절임은 재료의 수분을 제거하여, 조리 시 더 빨리 익고, 맛을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기획의도

Flavetta는 이러한 소비자에게 일상 속 간편하고 맛있는 절임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재료를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절임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절임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컬러

브랜드의 메인 컬러인 화이트, 베이지는 자연스러운 절임의 이미지를 대표하며, 대조되는 컬러인 레드와 그린은 신선한 채소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또한, 절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절임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절임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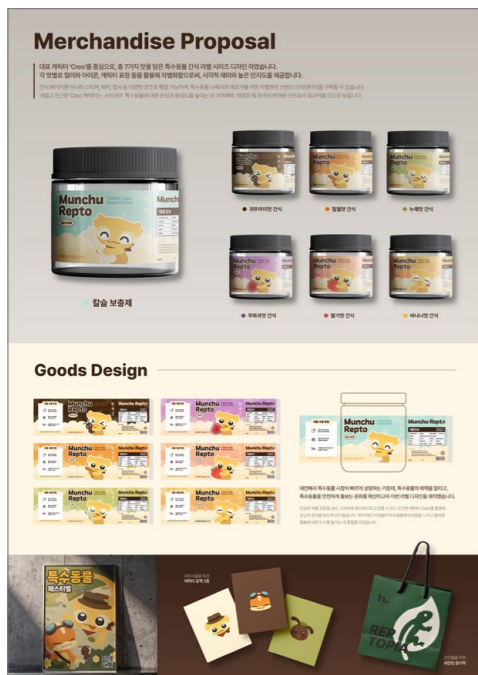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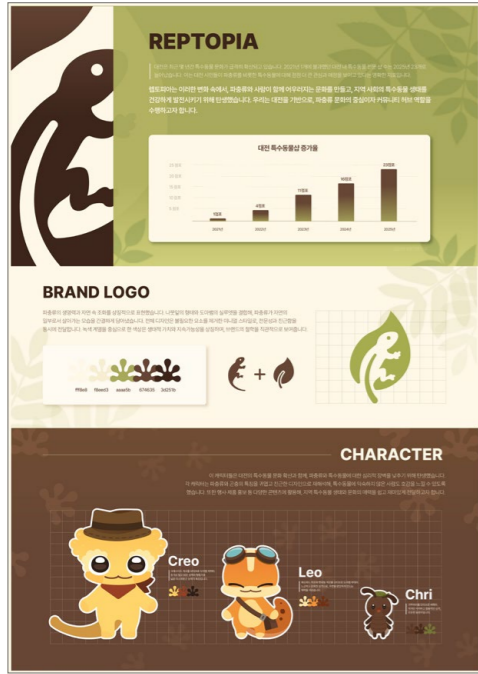


'플라베따'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식문화 속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요리에 대한 수요에 주목하여, 한국인 식습관에 맞춘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채소를 기반으로 한 마리네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닌, 허브와 향신료, 오일을 더해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며, 일상 속에서 즐기는 작은 요리를 통해 고급 미식 문화를 쉽고 우아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라베따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 건강함과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일상 식탁 위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축제 같은 풍미를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INNER 특선 대전 특수동물 홍보-BI,캐릭터 디자인,굿즈 제안

디자이너 이서령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본 작품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수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생태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된 'REPTOPIA'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굿즈 디자인 제안입니다. 대표 캐릭터 'Creo'를 중심으로 특수동물 전용 간식 라벨 시리즈와 굿즈를 개발하여, 단순한 시각 디자인을 넘어 지역 특수동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인식 개선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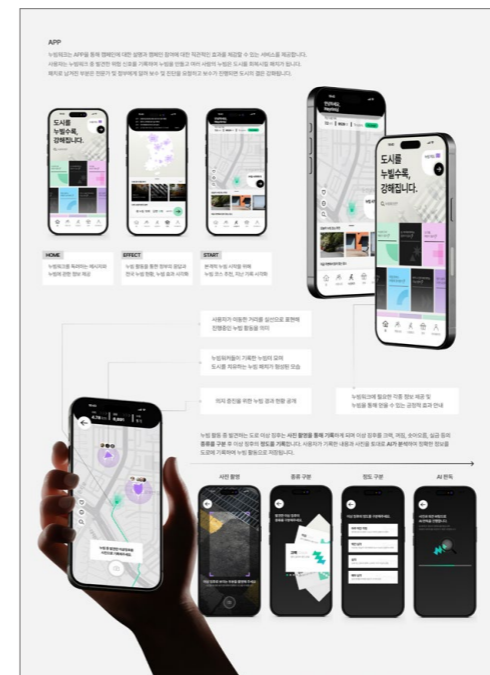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대전 특수동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약 13배 증가가 예상될 만큼 잠재력이 큼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특수동물에 대한 거리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TOPIA'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특수동물 커뮤니티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디자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 특수동물 문화"라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브랜드의 상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도마뱀 실루엣과 잎사귀 이미지를 결합해 자연 속 생태 조화와 지속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색상 팔레트는 갈색과 연두 계열로 안정감과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다양한 매체에서 높은 시인성과 재현성을 확보했습니다. 브랜드 중심에는 탐험가 감성을 담은 'Creo'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자 스타일의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Creo는 모험과 발견을 상징하며, 소비자에게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탐구심을 표현한 조사원 'Leo', 장난스럽고 귀여운 곤충 캐릭터 'Chri'를 더해 개성 있는 캐릭터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간식 라벨과 굿즈에 등장하여 소비자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하고, 제품 특성과 연결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제품 디자인은 귀뚜라미, 밀웬, 애완, 무화과, 딸기, 바나나, 칼슘 보충제 등 7종의 간식 라벨로 구성되었습니다. 맛과 기능에 따라 색상과 캐릭터 포즈를 달리해 차별성을 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직관적인 정보 구조를 적용해 소비자가 용도와 맛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크기와 포맷에도 대응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굿즈는 캐릭터 엽서, 행사 포스터, 소풍백 등으로 확장하여 브랜드 경험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구매에서 소장,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브랜드와의 연결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결국 'REPTOPIA'는 대전 특수동물 시장의 성장성과 문화적 확산 가능성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단순한 상업 브랜드를 넘어 지역 생태문화의 거점이자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창의성·완성도·사회적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WINNER 특선 NUBIM WARK(누빔워크)

디자이너 안혜림, 남윤지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최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반 침하 소식은 시민들의 불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상 속 작은 균열과 단절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누빔워크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한국 고유의 '누빔' 문화에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많은 천을 버리지 않고 덧대고 기워 새 생명을 불어넣듯, 시민의 발걸음이 모여 도시의 틈을 찾아내고 흐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참여자는 앱을 통해 위험 징후를 기록하거나, 안전이 필요한 구간을 걸으며 데이터를 남깁니다. 한 사람의 걸음은 점선이 되고, 여러 사람의 걸음이 이어져 실선이 되며, 그 실선이 겹쳐져 하나의 면을 이룹니다. 이 면은 곧 '누빔'이 되어 도시의 안전망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전문가 검토와 행정 대응으로 이어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누빔워크의 핵심 가치는 책임, 연결, 회복, 지속가능입니다. 책임은 '내 도시를 내가 지키다'는 주체 의식이며, 연결은 시민의 발걸음이 서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회복은 틈을 메워 도시의 흐름을 복원하는 과정이며, 지속 가능은 다음 세대까지 안전한 도시를 이어주는 가치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점선·실선·면으로 진화하는 누빔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걸음이 모여 면이 되고, 마침내 도시를 덮는 하나의 안전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걸음이 또 다른 걸음과 이어져 하나의 누빔이 되고, 이 누빔들이 도시 곳곳에 쌓여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걸음은 불안을 줄이고, 연결을 만들며,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도시는 우리가 누빌수록 강해집니다.

WINNER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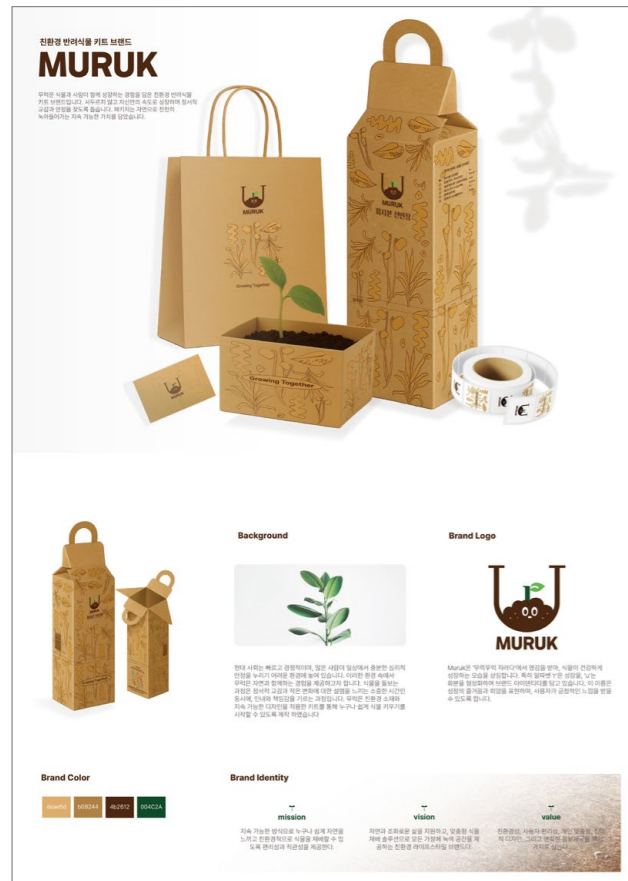
**반려식물키트,
MURUK(무럭)**

디자이너
김슬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MURUK’은 식물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담은 친환경 반려식물 키트 브랜드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선사하는 반려식물 가꾸기 과정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식물을 키우며 깊은 교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패키지는 친환경 종이 소재로 제작되어 절취선을 따라 잘라 화분에 바로 심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랜드의 반려식물을 모티프로 한 패턴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과 소재 선택을 통해 ‘MURUK’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며, 식물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선 Winner

WINNER
특선

걷는 감정들

디자이너
곽주현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걷는 감정들〉은 대전 시민들이 산책을 통해 일상에서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기반 산책 프로젝트입니다. “감정에 따라 걷는 대전의 감정 산책”이라는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책이라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지역 공동체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5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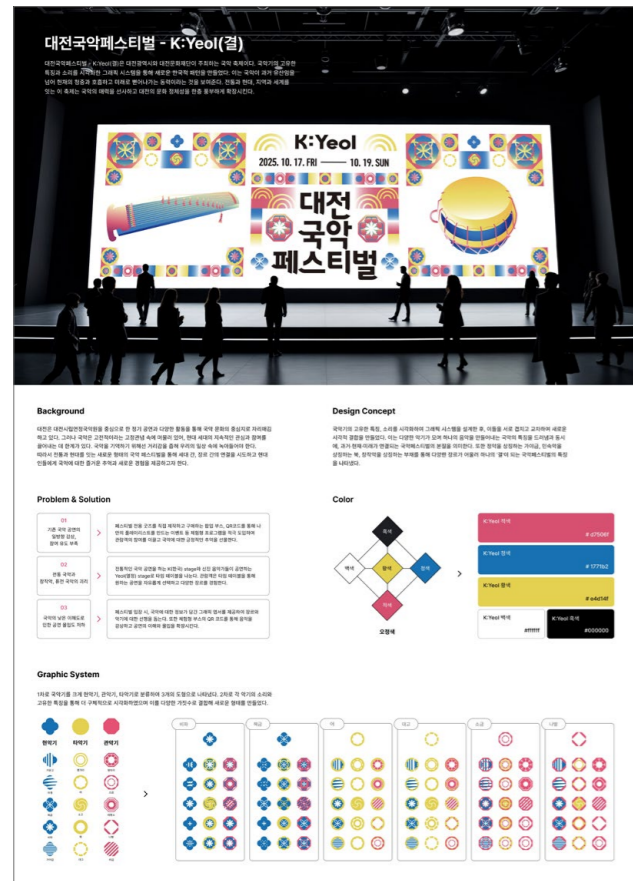


특선 Winner

WINNER 특선 대전국악페스티벌 - K:Yeol(결)

디자이너 박신영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대전국악페스티벌 - K:Yeol(결)은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국악 축제이다. 국악은 고전적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어, 현대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악을 깊이 보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거리감을 좁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악 페스티벌을 통해 세대 간, 장르 간의 연결을 시도하고 현대인들에게 국악에 대한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악기의 고유한 특징과 소리를 시각화한 그래픽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한국적 패턴을 만들었으며, 이는 국악이 과거 유산임을 넘어 현재의 청중과 호흡하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이 축제는 국악의 매력을 선사하고 대전의 문화 정체성을 한층 풍부하게 확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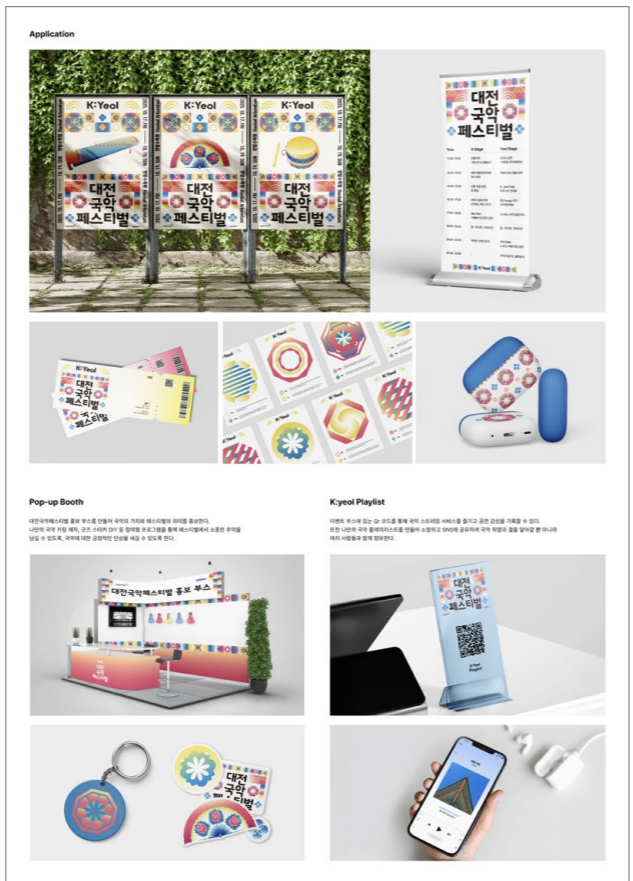


특선 Winner

WINNER 특선 대전 꾸무링 환경직업체험관

디자이너 문지윤, 김희수, 김다울, 최선욱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대전 꾸무링’은 대전 지역의 자연환경과 시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환경 직업 체험관으로, 아이들이 농업·생태·직업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브랜드명 ‘꾸무링’은 꿈을 꾸다, 무럭무럭 자라다, 연결을 뜻하며, 대전 시민이 자연 속에서 이어온 배움과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자연에서 놀며 꿈을 꾸는 숲 속 탐험대’로, 안정·성장·희망·순수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로고는 대전의 상징적인 산과 녹지를 모티프로 부드러운 곡선 서체와 탐험하는 캐릭터 실루엣을 결합해 지역성과 함께 아이들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컬러 팔레트는 대전의 푸른 숲과 맑은 하늘, 시민의 활력을 상징하는 녹색·노란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콘과 그래픽 패턴은 모종삽, 식물, 야영 장비 등 체험관의 활동 요소를 라인 일러스트로 표현해 직관성과 친근함을 높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체험 키트, 모자, 명찰, 필기구, 가방, 안내판 등 다양한 매체에 적용해 방문객에게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대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시민의 환경 보호 의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지역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를 함께 강화합니다.



56



57

특선 Winner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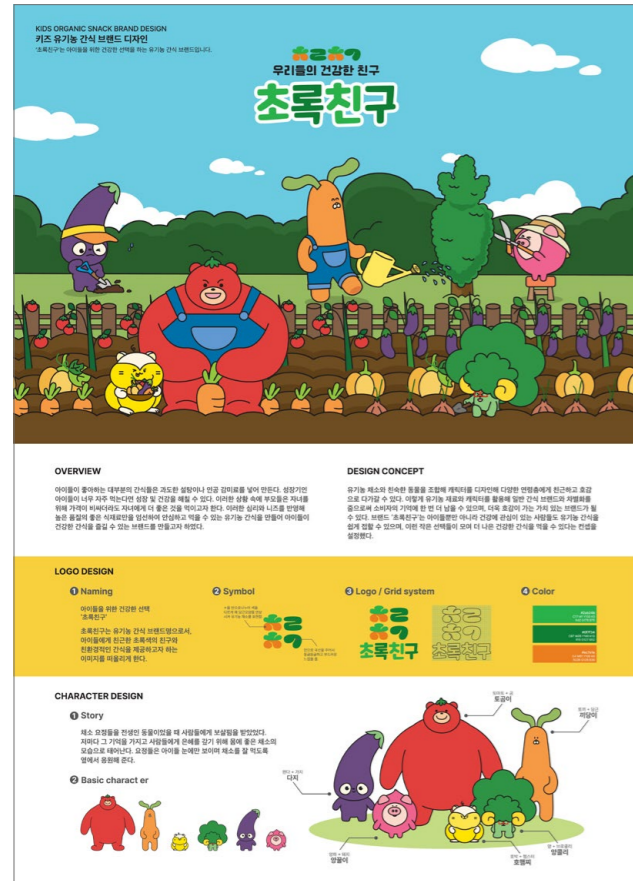
특선

‘초록친구’ 키즈 유기농 간식 브랜드 디자인

디자이너
이해민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간식에는 과도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이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리와 니즈를 반영해 높은 품질의 좋은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초록친구는 유기농 채소와 친숙한 동물을 조합해 캐릭터를 디자인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근하고 호감으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유기농 재료와 캐릭터를 활용해 일반 간식 브랜드와 차별화를 줌으로써 소비자의 기억에 한 번 더 남을 수 있으며, 더욱 호감이 가는 가치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브랜드 ‘초록친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유기농 간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 더 나은 건강한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선 Winner

WINNER

특선

제천시 축산 브랜드 제천일품육 리브랜딩

디자이너
유서현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푸르담’은 기존 제천일품육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축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제천일품육은 충북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관리·인증하는 브랜드 겸 인증마크로, 철저한 관리와 우수한 품질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제천시 축산물의 우수성과 청정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제천을 대표하는 축산 인증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고, 새 이름 ‘푸르담’은 제천의 푸른 자연과 정직한 마음(담다)을 담아, 청정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축산물을 상징합니다.



59

특선 Winner

WINNER 라인아크

특선

라인아크는 직선과 곡선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서체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 전범수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특선 Winner



WINNER 이음

특선

E:UM(이음)은 입지 않는 옷의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잇는 리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입니다. 기부나 리폼을 통해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작자로 참여하며, 그 결과물은 브랜드 콘텐츠로 소개되어 '내가 만든 것이 브랜드가 된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디자이너 전범수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61



특선 Winner

WINNER

특선

소제 정령신앙

디자이너 이준형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특선 Winner

소제 정령신앙은 애니미즘과 츠쿠모가미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합적 신앙 세계관이다.

애니미즘(Animism)은 사물이나 자연 현상에 영혼이나 정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이다. 주로 원주율적 문화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긴다. 츠쿠모가미(つくもがみ)는 일본의 전통적인 신화나 민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오랜 세월 사용되었던 물건이나 사물이 영혼을 얻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사용된 물건이 츠쿠모가미가 된다고 여겨지며, 이들은 종종 사람의 모습이나 형태를 취하면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애니미즘과 츠쿠모가미는 사물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소제 정령신앙은 소제동의 스토리가 부여될 만한 건축물, 사물, 자연물 등을 촬영하여 정령화하고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며,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흥미로운 과정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각 요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소제동의 100여 년 역사의 흔적이 담긴 인공물, 자연물, 그리고 사물의 정령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되살아나다'와 '재생'의 의미를 담아내며, 그 과정에서 지역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생의 과정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제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영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WINNER

특선

소아당뇨 관리어플 당당

디자이너 정민혁, 박주경, 모예은, 김태희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지도자 임진호



63

이 앱은 소아당뇨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하루 24시간 아이의 혈당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시각화한다.

아이 사용자 화면은 직관적인 그래픽과 친근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게임 미션·수집·보상 시스템을 통해 혈당 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돕는다. 혈당 측정, 인슐린 투여, 식사 기록 등의 과정을 놀이처럼 경험하게 하여,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부모 사용자 화면은 보다 전문적이고 정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혈당 수치와 변동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저혈당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주간·월간 분석 리포트를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식단·운동·수면 등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앱의 목표는 단순한 혈당 측정에 그치지 않고,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놀이와 교육,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으로, 소아당뇨 관리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선 Winner

WINNER
특선

**대전 둔산선사유적지
활성화 콘텐츠 제안
프로젝트 [우가우가
선사시대 살아남기!]**

디자이너
현은수, 임바다,
민차희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대전 둔산선사유적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낙후된 시설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친근하고 몰입감 있는 VR·AR 기반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대전의 역사적 정체성과 과학도시라는 지역적 상징성을 동시에
살리고자 했습니다. 꿈돌이를 선사시대에 떨어진 '미래 생명체'로
재해석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콘텐츠로 발전시켜 교육적
재미와 관광적 매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선 Winner



66

WINNER
특선

**작은 한 입으로
맛보는 미래 식량,
ChewBugs**

디자이너
이지원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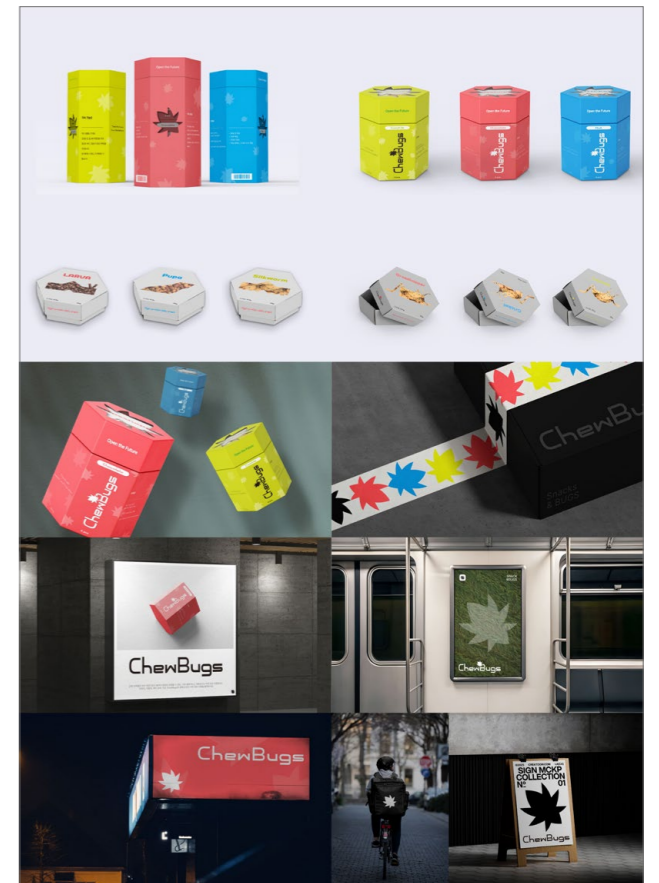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 사육의 온실가스 배출, 더 이상
식량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환경 부담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곤충 단백질은 분명하
해답이지만, '곤충'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ChewBugs(츄벅스)는 이 장벽을 깨기 위해 곤충을 담지 않은,
일상 속 친숙한 간식 형태로 재해석했습니다.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쿠키처럼 친근하며, 견과처럼 건강한 맛으로 곤충 단백질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에는 씹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유쾌한 의성어를 담아, '맛있게 즐기는 미래 식량'이라는
경험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패키지는 친환경 소재와 명확한
정보 전달로, '작은 한 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ChewBugs(츄벅스)는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미래 식량 전환을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는 브랜드입니다.



67



특선 Winner

WINNER ABYSS

특선

디자이너: 서진혁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ABYSS는 수중 구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시야 제한, 부정확한 위치 정보, 그리고 복잡한 장비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구조 다이버는 종종 탁한 시야와 제한된 장비 환경 속에서 목표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합니다. ABYS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R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마스크에 통합한 일체형 장비입니다. 다이버의 시야에 실시간으로 지형 데이터와 목표물의 방향, 거리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수면 위 지원팀과 데이터를 연동해 불필요한 탐색 동선을 줄이고 최적의 경로로 유도합니다. 이로써 구조 속도를 높이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구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와 정보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별도의 장비를 추가 착용할 필요가 없어 수중에서의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센서와 외부 음파 기반 위치 추적 기술을 결합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탐색이 가능하며, 구조 과정 전반에 걸쳐 다이버의 판단력을 향상시킵니다.

ABYSS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이버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비 간섭을 줄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위험을 동시에 완화합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데이터는 다이버와 수면 위 지원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구조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ABYSS는 단순한 구조 보조 장비를 넘어, 다이버의 시각과 판단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인명 구조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선 Winner

WINNER 소제를 물들이다

특선

디자이너: 강의찬, 김채은, 허문정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지도자: 이종숙

대전 동구 소재동은 과거 번성했던 철도산업의 흔적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과 낙후된 풍경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한화이글스의 연고지인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홈구장인 한밭종합운동장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소재동의 정체된 흐름 속에 '스포츠 문화 복합 스토어'라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작되었다.

『소재물들이다』는 지역 기반 스포츠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색을 지닌 두 팀 - 한화이글스와 대전하나시티즌 - 의 팬 문화를 한 공간에 녹여내는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MD샵을 넘어, 전시·체험·휴식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한 건물은 한화이글스를, 또 다른 건물은 대전하나시티즌을 테마로 구성하여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물들이다'는 단어처럼, 두 팀의 정체성과 색이 공간과 사람, 그리고 지역에 스며들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공간은 각 구단의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과 디자인 요소를 분리 구성하면서도,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체험형 전시, 기념품 제작 코너, 미디어 아트 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된다. 야외 테라스 공간은 팬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광장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점을 확장하는 매개체가 된다.

소재동의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본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서, 지역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스포츠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을 물들일 수 있다. 『소재물들이다』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옮긴 공간이다.



68



69

특선 Winner

WINNER
특선

제웅

제웅은 잊힌 전통 풍속 속 짚신 인형 '제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브제 디자인입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 사람들은 벼짚이나 삼베로 만든 사람 형상의 인형에 이름과 생년을 적어 넣고 길가에 버리며, 한 해의 액운과 병마를 함께 떠나보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인형은 공동체의 불안과 재앙을 대신 짊어진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제웅치기 같은 풍속은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염원과 정서적 상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 작품은 전통 제웅에서 비롯된 제웅의 형상과 의미를 향 오브제로 풀어내어, 현대인의 삶 속에 정화와 위안,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받침은 '제웅치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옛 엽전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액운과 함께 과거를 털어내고자 했던 소박한 놀이문화의 기억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제웅은 전통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감각적인 오브제로 재구성된 '심리적 장치'이자 '조용한 위안의 조형물'입니다.

디자이너
정모신

출품분야
패션&공예 디자인



WINNER
특선

땅이 입는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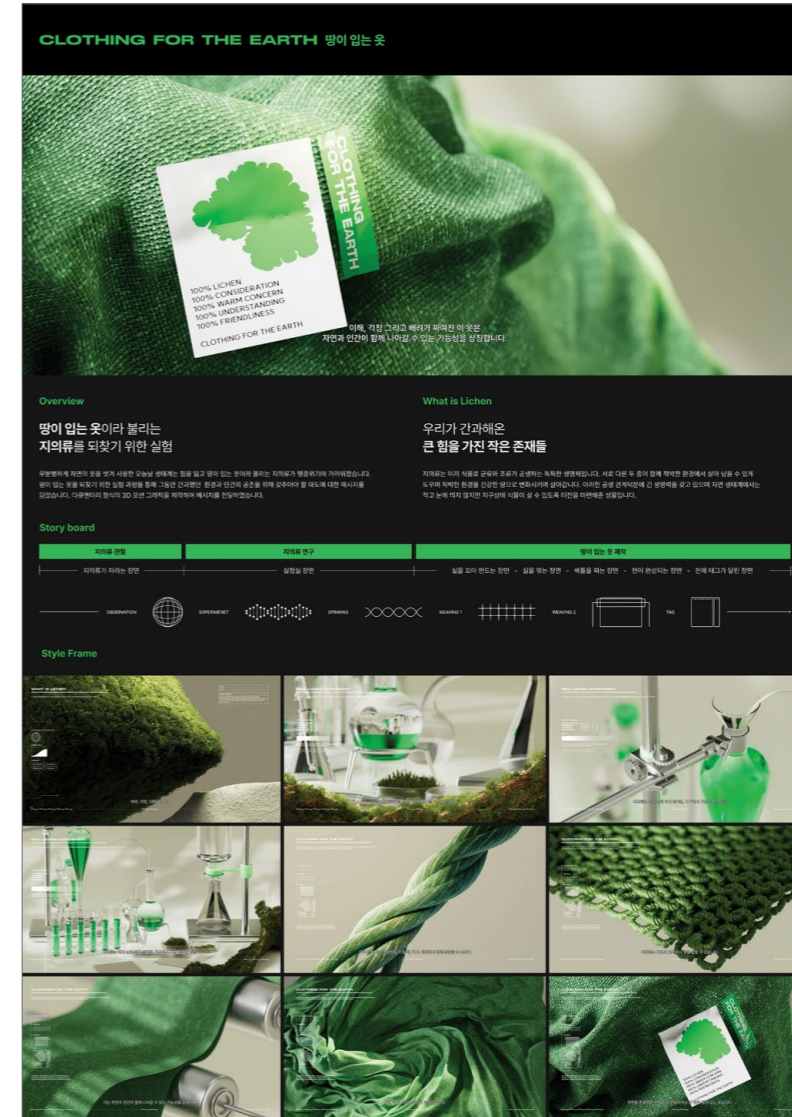
땅이 입는 옷은 지의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이 생명체에 비유하여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의류는 이끼 식물로 균류와 조류가 공생하는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러한 공생 관계 덕분에 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생태계에서는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척박한 환경을 건강한 땅으로 변화시키며 지구상에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준 중요한 생물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자연의 옷을 벗겨 사용한 오늘날 생태계는 쇠퇴했고 지의류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작품은 '땅이 입는 옷'을 되찾기 위한 실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외면해온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금 성찰하고 공존의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디자이너
임소연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WINNER
특선

잔물소비 - MZ세대를 위한 소비 습관 개선 웹사이트 디자인

디자이너
김지윤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고물가 시대에 과소비를 줄이고 싶은 MZ세대를 타겟으로 “잔물”을 키워드로 하여 바다 생물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3D 일러스트 캐릭터 “잔물프렌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금융을 어렵게 느끼는 MZ세대가 재미있고 가볍게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절약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한 웹사이트입니다. “나의 소비 습관 확인하기”를 중심으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서브페이지에는 잔물소비 소개, 시 기반 소비 분석, 절약을 위한 “잔물 챌린지”, 리워드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잔물마켓”, 잔물 고인문들에게 받는 절약 조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INNER
특선

한국의 온기 한 잔, 한온(韓溫)

디자이너
김수인, 윤시우,
김민정, 김차민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한온(韓溫)’은 한국의 8가지 전통문양을 현대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재해석하여, 한국적 따스함과 기운을 담은 가상의 티 브랜드입니다. 다소 촌스럽고 일상에서 활용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전통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특히 긍정의 의미를 지닌 한자 ‘福(복)’과 ‘喜(희)’를 전통문양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했으며,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WINNER

특선

굵는 자아

디자이너
김경호

출품분야
패션&공예 디자인

본 작품은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고립과 외로움을 주제로, 그 이면에 자리한 외모지상주의와 자기 억압의 문제를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였다. 특히,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추구하는 '거식증'을 중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외적 이상에 맞추기 위해 자아를 훼손하게 되는 과정을 구조적 실루엣과 디테일로 시각화하였다.

자켓은 과장된 실루엣과 깊은 후드 디테일을 통해 내면을 감추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를 반영하였다. 등판에는 오리가미 기법을 활용하여 등뼈 형상을 형상화함으로써 거식증의 상징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하의는 부츠컷을 기반으로 허벅지 라인에 턱(tuck) 디테일을 삽입해, 날씬함을 강요받는 압박감과 신체 비율의 왜곡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외관의 블랙과 레드 컬러 대비는 억눌린 감정과 내면의 파열을 상징하며,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는 붉은 안감은 숨겨진 고통과 내면의 흔들림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의복을 넘어, 신체를 매개로 사회와 자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는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완성되었다.



WINNER

특선

Red Bull 광고디자인

디자이너
방예림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이 작품은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을 자동차의 연료 계이지에 비유해, 에너지 음료가 줄 수 있는 활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광고 디자인입니다. 레드불의 캔 윗면을 연료 계기판으로 시각화하고, 고리를 중심으로 바늘이 'F(Full)'을 가리키도록 표현함으로써 '한 캔이면 풀충전'이라는 메시지를 유쾌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물방울과 금속 질감을 더해 음료의 신선함과 실제감을 살렸으며, 시각적 임팩트를 강화해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를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비유와 익숙한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광고로서의 전달력과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WINNER

패스트 포워드 레이싱

디자이너 정석원
출품분야 커뮤니케이션&융합 디자인

EBTM은 긴급 혈액수송 모빌리티입니다. EBTM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6개의 주행카메라로 주행하고, 전용 수송 드론을 탑재 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자체로만 주행 및 임무수행도 가능하며, 교통량 혼잡이 예상되어 골든타임의 지체가 판단된다면, 자동으로 해당 의료 관제실에 알림으로 상황을 파악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책임자의 판단으로 드론에 내장되었는 카메라를 이용해 혈액 수송 드론을 조종하여,목적지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비행하여 국민과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이비티엠은 우리나라 도로의 혼잡과 정체에 대한 긴급 시스템 체계의 미래적 대안인 패스트 포워드 레이싱은 매력과 진정한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국내에서도 하나의 정식 스포츠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로고 디자인했습니다. 속도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모던한 레이싱 스포츠 로고 디자인을 했고, 날렵한 곡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해 속도감을 편하며 강렬한 색상 대비로 시각적 표현을했습니다.

국내 레이싱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큰 스포츠가 되는 바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선 Winner

WINNER

Hertz

디자이너 양은희, 이지은, 김남규
출품분야 제품&서비스&환경 디자인

농인 부모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 자녀와는 달리, CODA는 제1의 언어가 다른 농인 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년기에 형성된 언어적 간극은 정서적 거리감과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ertz는 수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CODA를 위해, 농인 부모와의 소통을 돕는 수어 시각화 디바이스입니다. 수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번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어의 시각-운동적 언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각 중심의 아이콘으로 부모의 수어를 표현합니다. Hertz는 '대화', '학습', '퀴즈'의 세 가지 모드를 통해 아이가 부모의 수어를 이해하고 익히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화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부모의 수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아이콘으로 전환합니다. 아이는 디스플레이에서 수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된 아이콘은 고유의 주파수 번호와 함께 저장되며, 이 주파수는 8개의 주제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아이는 학습 모드에서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 대화에 등장한 아이콘을 탐색하거나, 퀴즈 모드에서 프린트된 아이콘 카드를 기기에 태그하며 놀이하듯 수어를 익히게 됩니다. 퀴즈용 카드는 수어 이미지와 아이콘이 앞뒷면에 각각 인쇄되어 있어, 시각적 연계 학습을 돕습니다.

Hertz는 단순한 통역 장치를 넘어, CODA가 부모의 언어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수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며 농문화의 언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9



특선 Winner

Special Topic A.I.

A.I. 특별주제

김유민, 윤지현
Bioscape 한밭 - 생태와 기술의 풍경

우재민, 서한솔, 이은주, 정지우
Celluna

김유민, 윤지현
Chronoscape - 대전 시립 미술관 “시간의
미술관”으로

전지원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

A.I. SPECIAL PRIZE
특별주제 최우수상

Bioscape 한밭 - 생태와 기술의 풍경

디자인
김유민, 윤지현

지도자
김영호

‘Bioscape 한밭’은 한밭수목원을 기존의 정적인 자연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혁신적 생태 플랫폼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생태(Bio)’와 ‘풍경(Scape)’을 결합하여, 자연과 과학, 그리고 인간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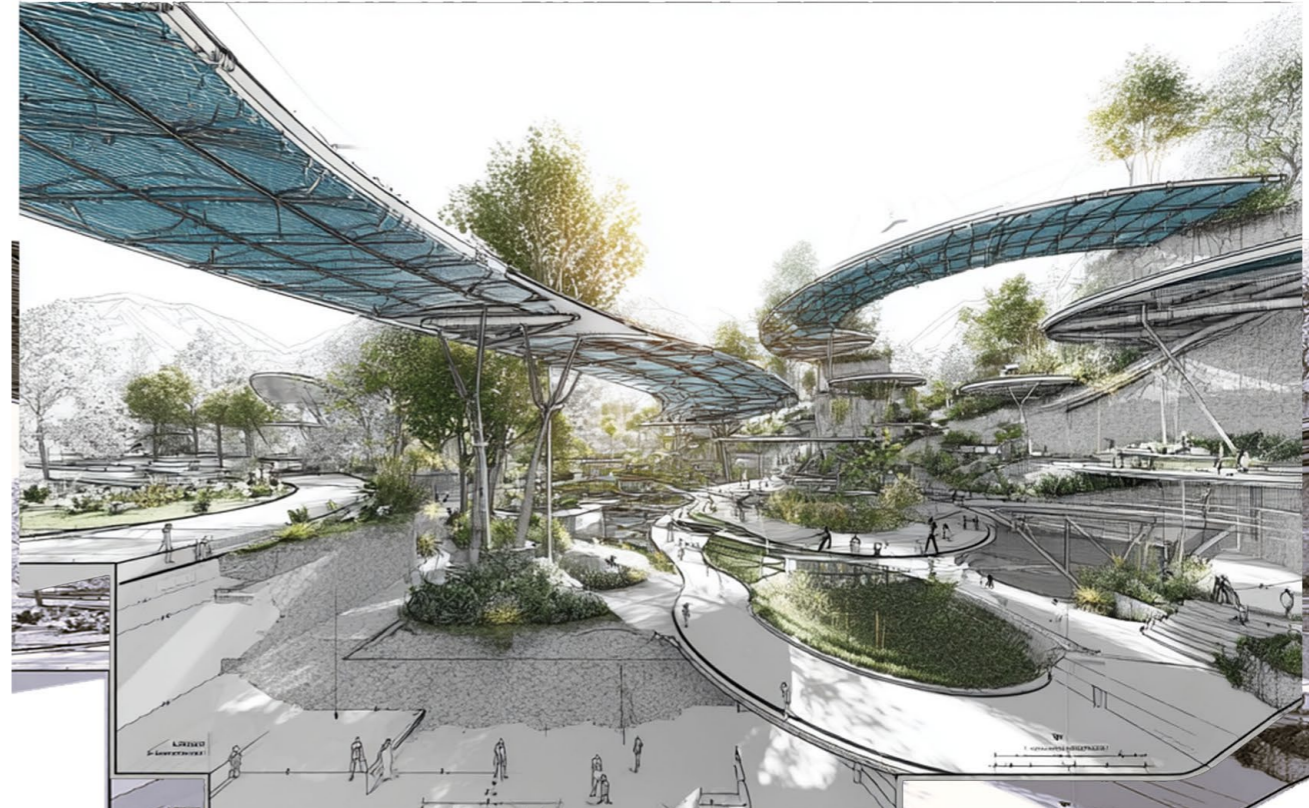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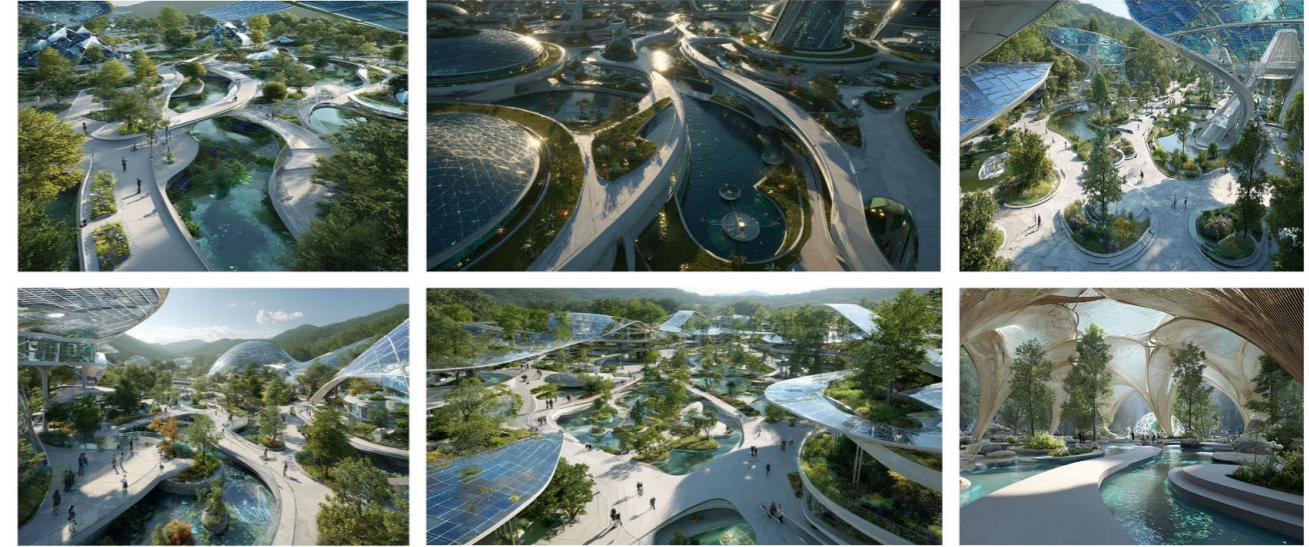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건강, 도시 회복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IoT 센서, 자가발전형 태양광 쉼터, 스마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자연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단순히 식물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과 생태가 결합된 미래형 공원 경험을 체험하며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ioscape 한밭은 과학과 생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적 삶의 실천 가능성과 스마트 생태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해 생성형 시를 활용해,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원의 풍경을 미드저니로 구현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의견

‘생성형 시 특별주제 최우수상 작품’인 「Bioscape 한밭 - 생태와 기술의 풍경」은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생성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컨셉과 디테일의 일관성이 높고, 서술된 내용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 작품임.



Bioscape 한밭 - 생태와 기술의 풍경



사용 프로그램

Midjourney

A top-down aerial view directly from above of a futuristic smart bicycle road in Daejeon, South Korea, with the city skyline and urban buildings of Daejeon clearly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curved bicycle paths weave through a mix of urban areas and natural green spaces near the riverbank. The scene features embedded IoT sensors on the road, glowing LED smart poles lining the paths, floating AR navigation icons, and digital signage visible from above. People biking and relaxing near the trees and riverbank are seen as small figures. Bright sunlight shines under a clear blue sky. The style is realistic with vibrant, natural colors, high-resolution details, conveying a smart city atmosphere --v 7

A.I. SPECIAL PRIZE

특별주제 우수상

디자인

우재민, 서한솔,
이은주, 정지우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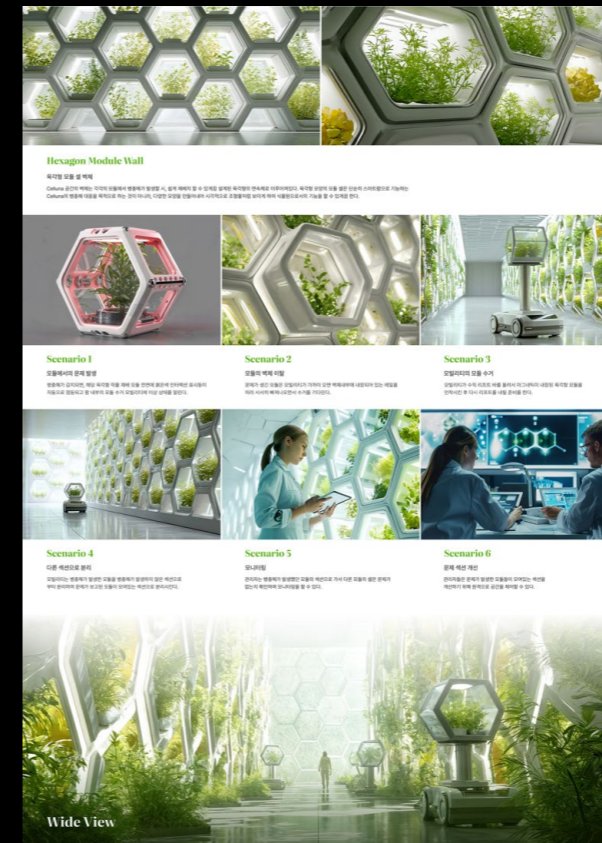
조성환

Celluna는 대전의 도심 속에 들어설, 미래 농업 기술과 공공 문화 공간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단순한 식물 재배 공간을 넘어,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공 식물원이자, 최첨단 자동화 스마트팜 시스템이 결합된 도시형 복합공간입니다.

기존 스마트팜은 병충해 감지와 대응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며, 장비 오작동이나 공기 흐름의 정체로 인해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elluna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벽면을 이루는 육각형 재배 모듈은 독립적으로 모니터링되며, 병충해 발생 시 해당 모듈만 자동 분리·수거됩니다. 내장된 레일 시스템과 모빌리티 장치는 문제 모듈을 안전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관리자는 원격으로 문제 구역을 제어·개선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사람의 직접 개입 없이 진행되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환경을 방어하고 회복합니다.

Celluna의 육각 모듈은 단순한 기능성 부품이 아닙니다. 모듈이 이루는 유기적이고 조형적인 패턴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예술적 구조물로 느껴지게 합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어,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식물원처럼 거닐고, 평일에는 학생들이 미래 농업 기술을 배우는 실습장으로 변모합니다. 계절과 작물의 변화가 공간 전체를 꾸미며, 대전 시민은 일상 속에서 농업의 가치와 자연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32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elluna는 단순한 농업 생산 시설을 넘어 대전의 미래형 농업·문화 랜드마크로 자리잡습니다. 이곳은 도시 한가운데서 농업 생산, 환경 보전, 시민 휴식,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Celluna는 대전을 미래 농업 도시로 도약시키는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과 기술이 함께 숨쉬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1. a futuristic indoor smart farm with hexagonal plant modules stacked tightly on one wall like a living green wall, viewed from a diagonal angle, only one side of the corridor has the modular structure, compact mobility robot on the floor, sleek and minimal space design, bright and natural lighting, ultra-realistic, cinematic composition, cover image style --ar 16:9 --v 7

2. futuristic indoor smart farm wall composed of stacked hexagonal plant modules with transparent fronts, each cell growing a healthy green plant, soft biophilic lighting and clean white parametric wall structure, a professional person standing in front holding a digital tablet, observing or controlling the system, wearing smart casual or lab outfit, bright and elegant atmosphere, modern clean interior, soft shadows, high-detail isometric scene --ar 16:9 --v 7

3. A compact futuristic delivery robot with a sleek silver body and wheels. Single thin cylindrical lifting column rising from its top center, supporting a flat platform shaped like a plate. On the plate is a single hexagonal modular plant cell. The plant pod has a white thin frame and a translucent shell with lush greenery inside, placed in a clean and high-tech indoor smart farm. Soft white lighting, minimalist background, highly realistic product design style, isometric projection angle. Elegant micro seam lines, high-detail render, mid-lift state

사용 프로그램
Midjourney
Krea, Magnific

4. a high-detail concept design of a futuristic indoor farming hexagonal grow module, single unit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ultra-thin metallic frame with soft chamfered edges, transparent biopolymer front showing green hydroponic crops, visible root structure inside, integrated micro-sensors and ventilation slits, magnetic connection points on the corners, minimal glowing indicators, seamless modular design with a clean matte-white surface, realistic industrial design render, cinematic soft lighting, product design style --ar 16:9 --v 7

5. a cinematic widescreen shot inside a futuristic agricultural control room two or three researchers in sleek modern lab coats sitting at a clean white desk, closely analyzing a single open laptop the laptop screen displays a glowing digital interface of hexagonal plant modules with live growth data and environmental controls behind them, large wall displays show a panoramic overview of hex-based smart farm systems the lighting is soft, ambient, with subtle green and lemon-yellow accents reflecting the botanical theme minimal decor, digital tablets, clean surfaces, biotech laboratory aesthetic ultra-realistic studio photo, sharp focus, 25:9 ultrawide frame, high-end lighting, calm but focused mood --ar 16:9 --v 7

6. Close-up view of a futuristic parametric bio-architectural wall made of repeating hexagonal white skeleton frames. Simple, compact, apple-style locomotion robot mobility product that moves along the frame grid, each cell contains lush green hydroponic plants, transparent membranes and built-in biosensors, bright ambient lighting, clean and sterile environment, elaborate mechanical details, smart farm system integration, softly glowing interface, high realism --ar 16:9 --v 7

7. a futuristic indoor smart farm with hexagonal plant modules stacked tightly on one wall like a living green wall, viewed from a diagonal angle, only one side of the corridor has the modular structure, compact mobility robot on the floor, sleek and minimal space design, bright and natural lighting, ultra-realistic, cinematic composition, cover image style --ar 16:9 --v 7

8. a futuristic indoor smart farm with vertical hexagonal cell modules mounted on a clean white wall, plants growing healthily inside translucent containers, modular structure resembling a botanical garden, soft daylight filtering through a glassroof, a few people walking and observing the plants, calm and minimalistic interior design, organized and breathable layout, realistic lighting, cinematic photograph style, 8k --ar 16:9 --v 7

9. futuristic indoor smart farm wall composed of stacked hexagonal plant modules with transparent fronts, each cell growing a healthy green plant, soft biophilic lighting and clean white parametric wall structure, a professional person standing in front holding a digital tablet, observing or controlling the system, wearing smart casual or lab outfit, bright and elegant atmosphere, modern clean interior, soft shadows, high-detail isometric scene --ar 16:9 --v 7



A.I. SPECIAL PRIZE
특별주제
장려상

Chronoscape - 대전시립미술관 “시간의 미술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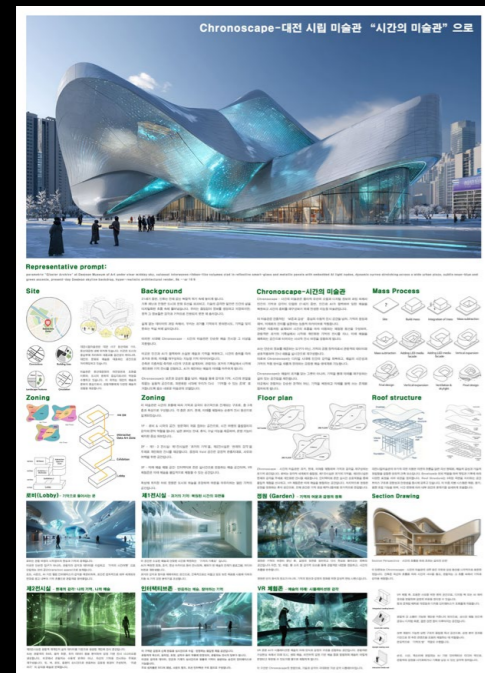
디자이너
김유민, 윤지현

지도자
김영호

Chronoscape - 시간의 미술관은 물리적 유산의 소멸과 디지털 정보의 과잉 속에서 인간의 기억과 감각이 단절된 21세기 중반, 인간과 시가 협력하여 잊힌 예술을 복원하고 시간의 층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탄생한 지능형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전통적인 '보존과 감상' 중심의 수동적 전시 공간을 넘어, 기억을 생성하고 해석하며 미래로 확장하는 능동적 아카이브로 기능합니다. 건축은 지층을 닮은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관람객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체험형 동선을 제공합니다. 관람객은 과거의 기록실에서 출발해 개인화된 기억 전시를 거치며, 미래 예술을 예측하고 생성하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전시 여정을 경험합니다. 시는 단순한 안내 도구를 넘어 기억의 공동 창작자로 작동하며, 관람객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여 전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닌, 기억을 복원하고 미래 예술을 함께 쓰는 참여자로 변모합니다. 결국 Chronoscape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감각을 회복시키고 예술의 시간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감응형 예술 생태계로 자리잡습니다. 이곳은 과거를 담은 정적인 그릇이 아니라, 기억과 시를 매개로 미래를 재구성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며, 관람자에게 예술과 시간, 그리고 기억의 본질을 새롭게 질문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Chronoscape-대전 시립 미술관



사용 프로그램

midjourney

parametric "Glacier Archive" at Daejeon Museum of Art under clear midday sky, colossal interwoven ribbon-like volumes clad in reflective smart-glass and metallic panels with embedded AI light nodes, dynamic curves stretching across a wide urban plaza, subtle neon-blue and green accents, present-day Daejeon skyline backdrop, hyper-realistic architectural render, 8k --ar 16:9

A.I. SPECIAL PRIZE

특별주제 장려상

디자이너 전지원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MOA'

이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 쉼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꽃잎은 대전의 상징 꽃 목련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수직 정원과 스마트팜 시설이 있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도시 농업 기술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대전의 과학기술 정체성과 생태 도시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MOA 도시의 자연을 모으다

Background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동시에 도심 속 생태 공간인 한밭수목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휴가를 제공하는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중적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모색하는 공공 공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Purpose
이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 쉼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유리온실은 목련꽃의 개화 이미지를 모티브로 구조합니다. 건물 중심에는 스마트팜 시설과 수직정원이 있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도시농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반투과하는 유리 구조와 개방된 공간 구성은 식물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대전의 과학기술 정체성과 생태 도시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Idea Sketch
Flower-inspired futuristic double-story plant lounges are located in lush landscaping parks. The structure consists of petal-shaped glass volumes that radiate symmetrically from a central circular core. Each petal forms a soft curved glazed exterior, made from low-reflective smart glass and brushed aluminum frames. The design rests lightly on basic contoured landscapes along flower-like geometries. Wooden board trails gently wrap around the building and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gardens and vegetation. The interior space is filled with plants, warm ambient lighting, and curved interior walkways. The building offers a tranquil and elegant atmosphere, combined with biometric and functional public design.

Prompt
Flower-inspired futuristic double-story plant lounges are located in lush landscaping parks. The structure consists of petal-shaped glass volumes that radiate symmetrically from a central circular core. Each petal forms a soft curved glazed exterior, made from low-reflective smart glass and brushed aluminum frames. The design rests lightly on basic contoured landscapes along flower-like geometries. Wooden board trails gently wrap around the building and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gardens and vegetation. The interior space is filled with plants, warm ambient lighting, and curved interior walkways. The building offers a tranquil and elegant atmosphere, combined with biometric and functional public design.

AI
Midjourney / ChatGPT / Wrtm

Site Reference
한밭 수목원 목련

자연친화 쉼터 **관광 랜드마크 형성**

Design Concept
꽃잎 형태의 리운지는 대전의 상징 꽃 목련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습니다. 수직정원과 수경재배 시스템은 과학기술 도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농업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자연과 기술, 예술이 공존하는 공공 쉼터의 장소로 적용됩니다.

"빛을 담은 도시 속 자연의 확장"

Day View





Detail
"MOA"는 "모아"라는 순우리말과 목련(mokryeon)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 사람, 기술이 하나로 모여드는 도심 속 공공 쉼터이자, 스마트팜과 수직정원을 통한 자연 확장 플랫폼입니다.

빛을 담은 꽃잎 형태의 외관 내부에는, 1층은 수직정원이 펼쳐진 열린 쉼터로, 2층은 수경재배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 라운지로 구성되어 과학기술 도시 대전의 특성과 감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수경재배 식물라운지
저라는 조류목 재배의 사이에는 스마트팜 라운지

수직정원 쉼터
계절마다 바뀌는 다양한 포플로 꾸며내는 수직정원

Inside View
▶ 1층
1층은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쉼터입니다. 중앙의 원형 수직정원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이를 감싸는 편지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유리란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바닥에 시간대 따라 달라지는 빛과 그림자를 드리워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간접조명과 포플론 요소가 더해져, 단순한 이동이 아닌 '자연'을 통과하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계단을 오르며 방문객은 스마트팜 체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감성적 경험과 도시농업의 미래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Inside View
▶ 2층
2층은 수경재배 기반의 스마트팜과 플랜트 라운지가 결합된 체험형 공간입니다. LED 조형 아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상징 과학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도시농업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라운지형 공간은 식물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새다른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프로그램

ChatGPT

Midjourney

Wrtn

Flower-inspired futuristic double-story plant lounges are located in lush landscaping parks. The structure consists of petal-shaped glass volumes that radiate symmetrically from a central circular core. Each petal forms a soft curved glazed exterior, made from low-reflective smart glass and brushed aluminum frames. The design rests lightly on basic contoured landscapes along flower-like geometries. Wooden board trails gently wrap around the building and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gardens and vegetation. The interior space is filled with plants, warm ambient lighting, and curved interior walkways. The building offers a tranquil and elegant atmosphere, combined with biomimetic and functional public design.

FINALIST

입선

No.	수상자	작품명
1	박지훈	NOISE FILTER - 기차 소음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음 저감형 환경 디자인
2	방예림	이천도자예술마을 브랜딩 디자인
3	김다경	어린이 ESG 교육 체험관
4	이혜진	제천시립미술관 브랜딩 디자인
5	백지혜	하회선유줄불놀이
6	이성은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플랫폼 'LONDDY'
7	김유영, 김가은	高線遊林: 철도의 선에서 공간으로의 전환
8	곽진, 이금재	안전의 유통기한
9	권민기	휴도 (休道)
10	성민주	한강작가의 문체를 반영한 '한강 고딕체'
11	방예림	SPEED HAWKS
12	조민주	서울플라스틱방앗간 프로모션 디자인
13	정다진	Olverheat 열섬현상 해소 캠페인
14	이윤서	제30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15	장유빈	동구를 사랑하는 꼬마 탐험가 모야
16	김현빈	Peak Pouch
17	김현빈	협력의 집
18	쿠와자와 수미레	세계를 바꾼 과학자
19	조민주	보이지 않는 채움의 연결
20	이지민	대전 ROLL TODAY'S BLOCK
21	김지윤	대전빵축제 빵모양당 웹사이트 리디자인
22	강건우	DUCKY
23	강건우	WIMO
24	신다현	따뜻한 대전의 맛, '따뜻피자' 브랜딩
25	김성균	dockmedi - 인지저하 환자를 위한 가정용 복약 보조 시스템 디자인
26	이준형	대창이용원
27	임현송	광풍별책(光風別冊)
28	최수인	온결溫結: 과거와 미래를 따뜻하게 잇는 문양
29	홍욱	Tdiffuser
30	강주희	TAG 국악

No.	수상자	작품명
31	김채린, 조윤상, 김민우	원터치 완강기 박스
32	한초희	결이랑 친구들
33	심유미	'프린시오'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34	심유미	'코스문' 헤어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35	심유미	'블루아테' 가향 홍차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36	심유미	'할라와' 소스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37	김동우	BIOBIN
38	정다현	찰나를 머금은 형상, 수수
39	최사랑	어사화: 유학생 웰컴 키트
40	이용현, 송승우, 한형균	오르비스(Orbis)
41	공창원	전통이 피워낸 한 잔의 꽃 다화루
42	한효정	Harmonizing together
43	전서현, 김서원, 정민재	T·Zone
44	이금비, 이채은	패홍
45	윤경란	직업의 세계
46	손지수, 김하늘	현대인을 위한 건강식단
47	이기훈	초록초록 씨앗상자
48	김다경, 손재희, 김보민	Dog Donor
49	Fusaro Ilaria	서로비상
50	김지나	FRUVIA
51	김바다	Livonex: 만성질환 대응 휴대형 약물전달기 디자인
52	박시현	상처난 감굴에 스티커를 붙여 가치를 더하는 브랜딩 -kkuu(꾸우~)
53	현은수, 김유정	딤페이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 '딤펜스'
54	박서진, 조하은	타입페이스 알파벳 카드
55	윤태웅	순환형 안개쉼터 'loop'
56	최우영	COMPOSITION FOR DAEJEON
57	오현지, 김가희	INDUCEL_인공장기와 인공혈액 연구 및 홍보 공간
58	정재준, 박채운	온담 - 모듈형 김장 스테이션
59	송지원, 허지유	BIND: 문화유산 복원 시스템 로봇
60	임소연	럭키 익스프레스

FINALIST

입선

No.	수상자	작품명
61	조하은, 박서진	환상의 동물
62	김세연, 김채은, 김아림, 박지우	익! 대전 정착 대작전
63	한영우	SORA
64	유현수, 민가경, 서다미	Zoobree
65	유현수, 민가경, 서다미	Floatis
66	조은현, 이수영	도나쓰튜디오
67	김성식, 하예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아지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68	임세정	너와 나를 잇는 소리, 2025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69	김민혁	PAWREST,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모듈형 유모차
70	이건홍	Glovus
71	김도경	센스실드(SenseShield) - AI 기반 청각 보호·감각 피드백 스마트 산업 고글
72	석지요	대전교통팝업카페"ROUTE(루트)"
73	전가연, 임정선, 윤수아	결을 새기다
74	배성원, 박유비, 민동현, 김보민	드랍메이트_DropMate
75	김수민	Olive
76	강민지, 강선진	대한민국 울릉도 프리미엄 심층수 소금 패키지
77	김보경, 박진아, 유가은, 강예희	Talkit (토킷)
78	정수민	보문산 힐링체험 어플리케이션 '보문오소'
79	성유나, 최가현	숫대테마박물관 마음숫길 문화상품디자인
80	성유나, 최가현	든든-하이 : 1인 가구 쌀(잡곡)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81	한동우	Fontway
82	성유나, 최가현	묘리 송순주 : 대구 무형유산 전통주 패키지
83	송예슬, 유재우, 서지우	시냅스: 뇌졸중 환자를 위한 언어재활 서비스
84	배소영, 김고은	모쪼록
85	김태홍, 원재연, 이효정, 한은주	MEDI:외국인들을 위한 약 서비스
86	정석원	한국의 전통적인 귀문 문고리 모티브
87	김태훈	회상의 샘 : 지진에 대한 치유 공간
88	신기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혁신적 모빌리티인 'Pioneer'
89	전범수	소노라
90	이동욱, 김수현, 이상현	RE:ROOT

No.	수상자	작품명
91	이연우	AI REWALK MATE : 실외 보행 안정화를 위한 맥락 기반 AI 균형보조 기기
92	박미주	약밥을 '감다'
93	전희주, 이미영	BEAT
94	최환중	아파트 주민을 위한 소통게시판 'alley'
95	김정현, 윤은채	세이프 그립 - Safe Grip
96	김나연, 최선이, 김승준, 배민경	BlueSeed
97	이해민	다복다복
98	김서연, 박소현, 양윤아	니슬리(NISSEULLY)
99	김현성, 이준희, 우재민	SPORA
100	문서영	영광 백수해안도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101	이혜나, 황서연, 이예령	Prism :: 기업을 위한 xr스마트글래스 서비스경험디자인
102	김산하	BOA
103	유세빈	Moang
104	박민제	Clean Box
105	임희찬	대전의 자연+과학+패션
106	박연지, 고나연, 임정은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종합 케어 패키지, CAREPETLY
107	주성은, 김소은	초등 어린이 소방교육을 위한 소방지킴이 패키지
108	박준범, 정준현, 조용주	자람 (ZARAM)
109	홍준석	VTONE 브이톤
110	김유진	가능성의 날개 (Wings of Possibility)
111	최종범	여행 어시스턴트 로봇 navii
112	이가연	값아먹히는 폐
113	김유진	평화의 꽃 (Serenity Bloom)
114	김호진	Freedle
115	박규태	DREEMO
116	정호현	대전 줌비런 아이디어 및 브랜드 아이디어 제안
117	이원진	SENTINEL
118	민가원	Deflow
119	박규태, 홍준석, 손재경	AIRDIVIBER
120	이해진, 송나경	대전 계족산 황톳길의 도심 속 가장 느린축제, 0km festival

FINALIST

입선

No.	수상자	작품명
121	전예원, 이지현, 최유빈, 류예은	무지개복지공장 산하 베이커리 카페 브랜딩, 무지개오븐
122	홍지우	시를 입력하면 삶이 출력됩니다
123	이진하, 박여진, 송미주, 김하늘	Refloo
124	송민호, 이규원	WALKIE
125	이규원, 송민호	AUDION
126	정기영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27	이수인, 이유진, 신민수	Fix Buddy
128	권예은, 최윤아	OWL CARE
129	박건웅, 김연정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BI 디자인
130	임기환, 박민상	『용이톡톡』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제 패키지
131	박수현, 유혜림	ROOK.
132	이지아, 신하정, 임기환, 박민상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한민국 전통차 프리미엄 선물 패키지 명아
133	손인서	서대전공원 산책매너 안내 리플렛 디자인
134	성솔	죽음! 그 다음! Living better dead
135	이나윤, 조성혜, 강채민	cleaf
136	이나윤	DRAIN: 모두를 위한 쉽고 편리한 유니버설 설거지 경험
137	정재훈	RSP DESK (난민캠프 자가학습 종이책상)
138	정다영, 조성혜, 홍지은	TRACO - 3D 시각화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웨어러블 디바이스
139	성혜린	Coother
140	강채민	정책 ZIP: 청년을 위한 정책참여 플랫폼
141	피영민, 서승현	COHOID
142	김유림	트래빗
143	오유이, 선예빈, 최소영, 유선호	꿈틀 : 키보드 연동형 안전 헬멧 잠금 시스템
144	한형균	Ruman

FINALIST(생성형 AI 부문)

입선

No.	수상자	작품명
1	정예슬	대전, 도시의 등대
2	김가영	대청호 쉼터 '숨터'
3	박소영	Park:ON
4	김희린	꿈터 Dreamyard, 대전의 상징, 놀이 이상의 경험
5	허윤혜	빛고운 발길
6	심도용	Synora Korea's Living MICE Nexus
7	김유민, 윤지현	MIRAGE (군사용 드론 제어의 발전: "어둠 속에 숨겨져 적의 눈을 피해가고, 아군에게는 빛처럼 선명한 전략으로 길을 비추는 존재")
8	강미화	Daejeon GreenWave
9	이세빈, 유재영, 문동민	RE·leaf
10	배성원	2035 대전 AI 통합 모빌리티 라운지_모두를 잇는 미래형 교통 문화 허브
11	서준	미래를 품은 도심 속 자연, 한밭수목원
12	강예진	대덕연구단지 스마트 실험폐기물 수거 시스템 NEURO DOME

초대 디자이너 출품작

No.	출품자	작품명
1	김병완	18가지 빛깔로 풀어낸 한국 술
2	권윤경	슬로시티, 전주-여권 디자인

03
03

Memember
Memember

DDA
DDA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운영위원 명단

No	성명	소속	직위
1	이현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	안세윤	한밭대학교	교수
3	조성환	충남대학교	교수
4	최희영	대전대학교	교수
5	황경찬	한남대학교	교수
6	남승범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	회장
7	유충완	포나인	대표
8	정석준	고스디자인	(A)대표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1차 심사위원 명단**

제품&서비스&환경디자인

No	성명	소속	직책	전문분야
1	유승호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랫폼	대표	건축
2	김현호	다원도시디자인	대표	건축
3	유충완	포나인	대표	제품
4	오인식	인스디자인	대표	제품
5	박경원	(前)삼성전자	수석 디자이너	제품
6	진세라	농심	디자이너	제품
7	이수희	동아연필(주)	실장	제품
8	김승기	애틀미	이사	제품
9	김영서	현대오토에버	책임	서비스
10	최석준	(재)한국디자인연구재단	이사	제품
11	이연지	(주)이음파트너스	본부장	건축 / 환경
12	노상윤	삼성카드	프로	제품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1차 심사위원 명단**

커뮤니케이션&융합디자인

No	성명	소속	직책	전문분야
1	도일	LG전자	책임연구원	시각, 융합
2	유종지	한화이글스	팀장	시각, 융합
3	김계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시각, 융합
4	최주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장	시각, 융합
5	박주원	대전하나시티즌	팀장	시각, 융합
6	이재준	대전디자인협회	회장	시각, 융합
7	이길형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시각, 융합
8	박창후	꿈틀	대표	시각, 융합
9	이성한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시각, 융합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1차 심사위원 명단**

패션&공예디자인

No	성명	소속	직책	전문분야
1	강여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패션
2	심영완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학과장	패션
3	피재욱	(주)디자인하우스	부장	공예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1차 심사위원 명단**

생성형 AI 특별주제

No	성명	소속	직책	전문분야
1	주한상	주식회사 고스서울	대표	생성형 AI
2	백정훈	호서대학교	교수	생성형 AI
3	이탁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생성형 AI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명단

2차 심사위원 명단

No	성명	소속	직책	심사주제
1	김계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지정·자유주제
2	도일	LG전자	책임연구원	지정·자유주제
3	이길형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지정·자유주제
4	이수희	동아연필(주)	실장	지정·자유주제
5	유충완	포나인	대표	지정·자유주제
6	이탁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생성형 AI 특별주제
7	주한상	주식회사 고스서울	대표	생성형 AI 특별주제





제34회 대전디자인어워드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

발행일 2025. 11. 27. (목)
발행인 이창기
발행처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227
www.didp.or.kr

총괄책임 이현숙
실무책임 김지수

그래픽디자인 노네임프레스 (NO-NAME)PRESS
주요 서체 Sonora (KTOWNTYPE)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과 과학, 미래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디자인의 역사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어워드는 국내 우수 디자인과 인재를 발굴하고,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과 과학, 미래 기술의 융합,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어워드로서, 디자인의 역사와 현재 · 미래 발전 가치를 제시합니다.

DIDP ISSN
3022-294X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과 과학, 미래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디자인의 역사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어워드는 국내 우수 디자인과 인재를 발굴하고,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과 과학, 미래 기술의 융합,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어워드로서, 디자인의 역사와 현재 · 미래 발전 가치를 제시합니다.

DIDP ISSN
3022-294X

THE 34th DAEJEON DESIGN AWARD